

인권정보자료실
NSL1.69

1999

활동 보고서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천주교연대

1999 활동 보고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인권정보자료실
NSL1.69

발행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02)747-2448, (02)747-2447(fax겸용)
발행일 : 1999년 12월 31일
발행인 : 김영진, 이완영, 문국주

1999

활동 보고서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선언문

오늘 우리는 세기적 격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현재의 시점은 개인들의 삶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개별국가, 그리고 지구촌으로 표현되는 세계 전체에 하나의 도전의 시기입니다. 개발과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한편 새 천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엇갈려 펼쳐지는 역사의 교차점이 비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 서서 미래의 기대와 희망보다는 과거의 회고와 반성이라는 화두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의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과거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너무도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분단의 질곡과 그로 인한 억압과 상처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분단의 역사에서 이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분단의 역사, 억압과 탄압의 암울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20세기 한국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오늘, 이른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효하게 통제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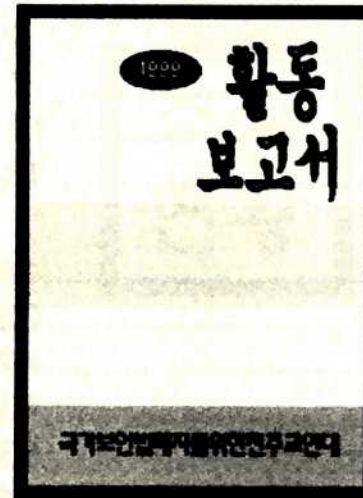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을 목전에 두고 2천년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천주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회의 정신을 선포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의와 자유의 신장, 그리고 평화와 일치의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의 대회의 정신을 이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를 결성하고, 범국민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어떠한 대체입법 시도도 거부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999년 7월 1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2000년 대회를 앞두고 해방과 구원의 회년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의 상징이었으며 우리시대의 민주와 진보의 목소리를 반공이데올로기로 덧칠하여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을 인권이 존중되고 통일이 실현되는 대회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교회정신에 입각하여 신앙인의 양심에 바탕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 서명운동, 전국순회기도회, 심포지엄 개최, 2000인 선언운동, 단식기도, 시국미사, 순회강연회, 국회의원에게 질의서 보내기운동, 입법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5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20세기의 마지막 국회를 국가보안법 개정안 조차 상정하지 않은 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먼 길이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갈 길은 가야 합니다. 새천년을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다시 우리의 의지를 가다듬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나서려 합니다.

미흡하고 깔끔하지 못한 자료이지만 그간 우리 활동의 성과들을 모아서 99년 활동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과 단체들에게 중간평가의 기초자료가 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아무쪼록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우리의 활동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이완영 수녀 문국주 대표)

글심는 순서

결성선언문.....	2
발간사.....	3
조직현황.....	5
사진으로 보는 전주교연대가 걸어온 길.....	7
국가보안법 관련 주요 정치일정.....	12
1999년 사무국 활동일지.....	13
◆ 1부 결성에 이르기까지	18
◆ 2부 결성대회 자료	33
◆ 3부 사업자료	42
서명운동 · 2000인 선언.....	43
순회기도회 · 자전거순례.....	53
질의서 보내기 운동.....	74
단식기도.....	78
순회강연회.....	79
심포지엄 · 워크샵.....	81
교구별 활동.....	144
◆ 4부 내부자료	149
관련공문 모음.....	150
각종외의록 모음.....	164
예결산 자료	177
◆ 5부 성명서 모음 · 홍보자료	191
◆ 6부 1999년 활동평가서.....	240
부록1 보도요청서	245
부록2 신문자료	252
부록3 기타자료	276
참가단체 주소록.....	282

첨부 : 1999년 활동보고서 · 활동사진모음 CD 1장

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주교연대 결성대회



조직 현황



• 고 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나길모 주교, 유현석 변호사, 이든명 변호사

• 지도위원

평신도

곽노현, 구영식, 김동주, 김영선, 김민배, 김상덕, 김용수, 김혜경, 나간재, 문재인, 박봉자, 박순희, 박영일, 서석구, 성 열, 임종희, 오창래, 윤순녀, 윤영전, 윤장현, 이각희, 이건영, 이국성, 이규정, 이명준, 이재균, 이재희, 이창복, 이홍각, 이필립, 정성원, 정용기, 정용태, 정향자, 최병모, 추규영, 허홍삼, 홍성훈, 황보윤식, 황세현, 정귀남, 노영민 (42명)

수도자

손인숙, 양운기, 장루시아, 최이레네, 나 프란치스카, 공병선 마리아, 박명숙 데레사, 최주영 실비아, 김달따 마리아, 정순희 겔마, 예수의 가타리나 명자 작은자매, 박순애 아나다시아, 고준경 프란치스코, 김춘경 가타리나, 박 막시마, 고도임, 이영자, 양 비안네, 로즈마리 (19명)

성직자

강희성, 김병상, 김승훈, 김영필, 김영욱, 김영호, 김인국, 김백암, 남국현, 류강하, 리수현, 문정현, 박윤정, 박창일, 배은하, 송기인, 송홍철, 신성국, 신순근, 신현봉, 안홍석, 오경환, 원유술, 이현로, 장용주, 정규완, 정형달, 조철현, 조호동, 최기식, 최승오, 함세용, 호인수, 황상근, 임문철, 문창우, 고병수, 현요안, 남승택, 김기룡, 김순호, 이계창, 김 기, 윤종관, 김현준, 배종호, 문양기, 최원석, 이영주, 조창래 (50명)





■1999년 7월 12일 - 11월 2일 : 서명운동 전개

- 6만 7천여명 취합 및 입법청원(소개의원 이미경)

■1999년 8월 16일-9월 12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기도회(28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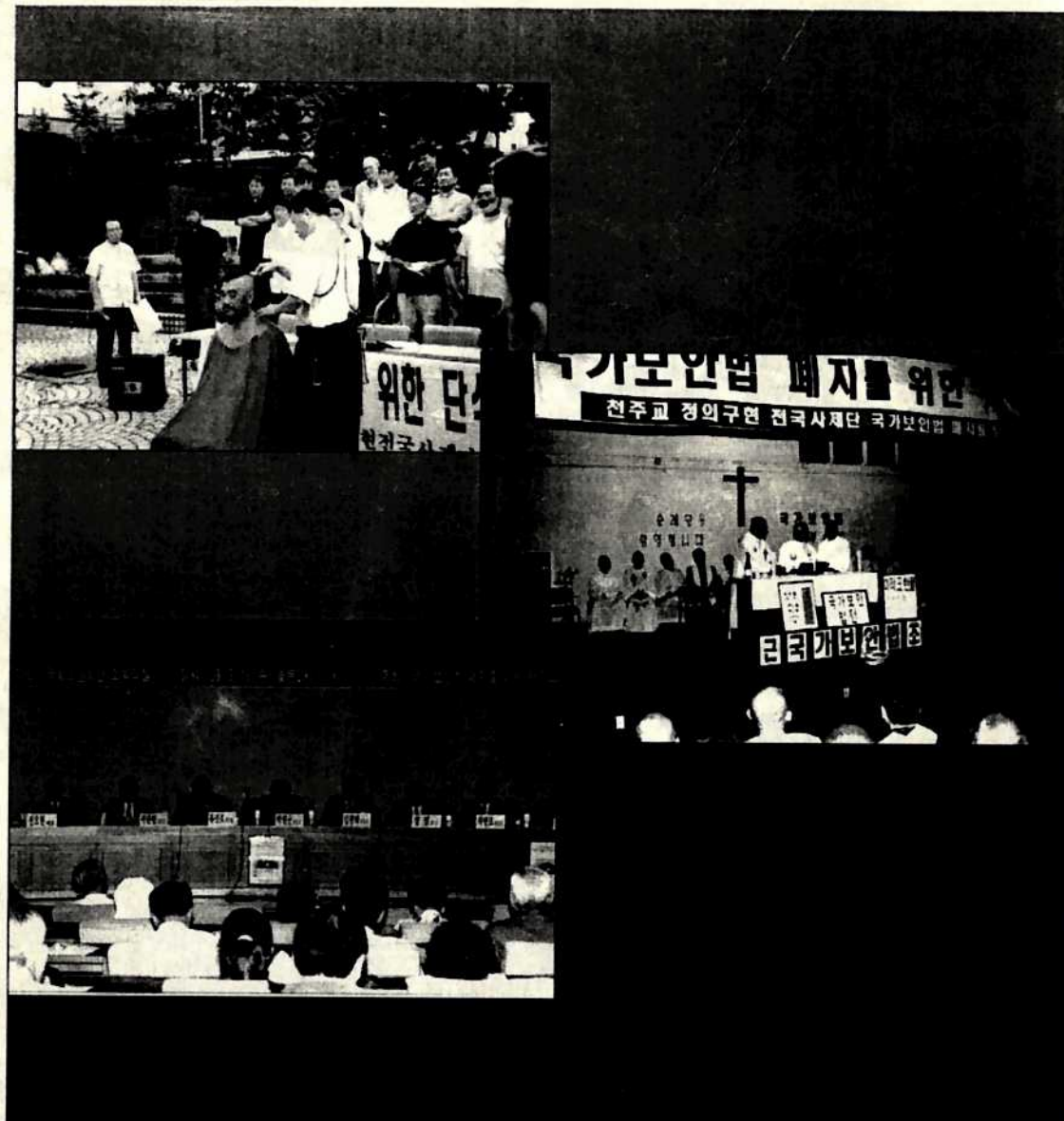
순례코스

서울-부평-인천-수원-안성-대소-광혜원-청주-대전-논산-강경-용안-함열-여산-천호-신태인-부안-정읍-익산-전주-군산-수류-광주-목포-부산-마산-창원-밀양-화원-대구-상주-안동-제천-원주-춘천-서울

■1999년 8월 25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 발표 및 기자회견

선언자 총계 성직자 - 375명 수도자 - 493명 평신도 - 1191명

8월 26일 한겨레, 8월 29일 가톨릭, 평화신문에 광고게재



■1999년 9월 7일 :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 돌입

매일 저녁 8시 명동성당 성모동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 봉헌

■1999년 9월 11일 : 천주교연대 제단체 동조단식 돌입

■1999년 9월 13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명동성당 문화관)

마산교구 사제단 동조단식기도 돌입

(이후 전주교구, 안동교구, 인천교구에서도 동조단식기도 진행)


■1999년 9월 15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999년 9월 18일 : 국회의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 발송



- 1999년 9월 27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명동성당 돌머리)
- 1999년 9월 28일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결성
- 1999년 9월 30일 : 천주교연대 2차 워크샵 및 대표자회의
- 1999년 10월 2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1차 범국민행동의 날
- 1999년 10월 14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사회단체 비상 시국회의
- 1999년 10월 16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대한민국 정신 집현의 결집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는 이상 무
-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핑계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
- 천주교 내 39개 단체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동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시국미사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주교총서연구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1주년 제1차 시국미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였다. 이틀간(11.29-30) 서울에서 개최된 시국미사는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0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이틀간(11.29-30) 서울에서 개최된 시국미사는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0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 1999년 10월 27일 : 소식지 1호 발행 및 배포
- 1999년 10월 28일 : 국회의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2차 질의서 발송
- 1999년 10월 29일 :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1999년 10월 30일 : 회년맞이 한미당 홍보부스 설치
- 1999년 11월 11일 : 국회앞 농성 결함
- 1999년 11월 17일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사업 제안
- 1999년 11월 30일 : 국회앞 시국미사 개최 및 농성 돌입(12월 2일까지)
- 1999년 12월 4일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문화제 결함
- 1999년 12월 이후 : 교구별로 시국미사(기도회) 개최, 인권문화제 등 추진

1999년 국가보안법 관련 주요 정치일정

- 02.18 박상천 법무부장관 - 여론결과 따라 국보법 개정 추진 입장
- 02.24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검토
- 03.02 차민련 안보특위 - 국보법 개정반대 입장 정리
- 03.17 국제 사면위원회 - 국보법 개정, 국가인권위 설치 관련 '한국캠페인' 전개하기로
- 05.07 김대통령 외신기자회견 - 국가보안법 개정 입장
- 07.05 김대통령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 -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 천명
- 07.06 한나라당 -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 입장 천명
- 07.1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
- 08.15 김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 재천명
- 08.17 국제사면위원회 -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촉구
- 08.18 한나라당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 -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성명 발표
- 08.24 이회창 총재 - 국가보안법 개정반대 재천명
- 08.25 국민의회의 당 8역회의 -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하기로
- 08.25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 2000인 선언
- 08.31 경실련·통일협회 등 국가보안법 폐지론 가세
- 09.0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국가보안법 폐지 삭발 단식농성
- 09.09 국가정보원 - 민혁당 간첩단 사건 발표
- 09.20 '국가보안법 반대 범국민연대' 결성
- 09.27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
- 09.28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결성
- 09.29 국회의원회 - 국가보안법 개정 대토론회
- 10.21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인도대상 제외
- 10.23 김대통령 - 2여 지도부에 국가보안법 개정 지시
- 10.24 국회의원회 '국가보안법 개정 검토위원회' - 국가보안법 개정 시안 마련
- 10.25 한나라당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의원모임' -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입장 재천명
- 11.02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 3만2천여명 서명모아 '국가보안법 폐지안' 입법청원
- 11.03 국회의원회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11.05 유엔 인권이사회 -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권고
- 11.19 국회의원회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원회 - 국가보안법 개정안 확정
- 12.04 김대통령 - 국가보안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 지시
- 12.08 2여 양당정책협의회 - 국가보안법 개정안 전충 실패
- 12.10 세계 인권선언 51주년 - 아시아 각국 인권탄압 중단 촉구
- 12.18 15대 정기국회 폐회
- 12.28 변협 설문조사 - 변호사 81%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해야"

1999년 사무국 활동일지

6월

- 6월 17일 사무국 입주식 및 상임대표·집행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
- 6월 21일 장기수 후원회·우리당제원 집들이 미사 참석
- 6월 22일 천리안 종교포럼 통신방 개설
- 6월 24일 제2차 연석회의
- 6월 25일 국보법 철폐 행동연대 토론회 참석
- 6월 28일 추기경님, 마산교구 주교님께 고문 추대 공문 발송
- 6월 30일 조계사 농성단 방문

일상활동

각 참가단체 연락, 공문수발,
회의자료·회의록 작성,
국가보안법 관련 자료 수집

7월

- 7월 1일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
- 7월 2일 전가대협에 국가보안법 교육자료 발송
지도위원 위촉장 작성
인권실천시민연대 개소식 참석
- 7월 3일 조계사 농성단 인권문화제 추진회의
단체별 지도위원 명단 파악
- 7월 5일 각 언론단체에 결성대회 관련 보도자료 발송
결성대회 준비모임
- 7월 8일 제 2차 집행위원회
- 7월 10일 사무국회의, 결성대회 최종점검
- 7월 12일 제2차 대표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대회
- 7월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결성관련 보도자료 발송
- 7월 16일 제2차 기획위원회
- 7월 19일 인하대 교육방송국 인터뷰
- 7월 20일 제2차 사업위원회]
- 7월 23일 제1차 조직위원회, 제3차 집행위원회, 제1차 워크샵
- 7월 26일 제3차 사업위원회
- 7월 27일 제3차 기획위원회
- 7월 29일 집행위원장 회의



8월

- 8월 3일 자원봉사자 면담, 2000인 선언, 전국순회기도회 사업안 발송
- 8월 4일 기획위원회 홍보팀 회의
- 8월 5일 제4차 사업위원회 - 전국순회기도회 안 확정
- 8월 6일 민기협 하루감옥체험 - 장루시아 지도위원
홍보물(유인물, 항의엽서, 리플렛) 초안 마련
- 8월 7일 각 참가단체, 교구에 서명용지 발송
- 8월 12일 4차 집행위원회
- 8월 16일 전국순회기도회 출정식 - 명동성당 들머리
문규현 신부 파북 10주년 기념미사 참석 - 상도동 성당
- 8월 17일 인천교구 순회기도회
- 8월 19일 수원교구 순회기도회
- 8월 20일 4차 기획위원회 - 심포지엄 준비
- 8월 23일 서울대교구 전산실장 면담 - 굿뉴스에 통신방 개설건
MBC PD수첩 담당자 인터뷰
- 8월 24일 인권운동사랑방에 순회기도회 관련 자료 송부
- 8월 25일 제5차 집행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 발표 및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
- 8월 26일 각교구, 참가단체에 홍보물(유인물, 항의엽서, 리플렛) 발송
시민운동정보센터 자료 등록
시민운동연합신문 인터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 한겨레신문 광고
- 8월 28일 광주대교구 순회기도회 참석
- 8월 2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 평화신문, 가톨릭신문 광고



천주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본격화

고위 성직자·30여개 단체 연대 결성...범국민운동 전개

수십년간 정치보복과 탄압의 수단이 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위한 운동이 한국 천주교회에서 본격화됐다.
김수환 추기경과 윤공희 대주교 등 교위성직자들과 교회내 3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운동은 지난 12일 서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9월

- 9월 2일 법무부, 자유총연맹에 심포지엄 참가요청 공문 발송
- 9월 3일 제4차 기획위원회
- 9월 6일 심포지엄 발제문 취합
- 9월 7일 각 단체에 심포지엄 포스터 발송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제단 단식기도 돌입
- 9월 8일 평화방송 라디오국에 순회기도회 관련 자료 발송
성명서 발표 -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단식기도에 즈음하여
- 9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평신도 연대단식 돌입
- 9월 12일 전국순회기도회 순례단 서울 도착
- 9월 1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 - 명동성당 문화관
심포지엄 논찬문 취합. 자료집 제작
- 9월 14일 '소위 민혁당 사건' 기자회견 참석
- 천주교연대의 입장 발표
- 9월 1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앞 미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 -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 9월 17일 단식하루소식 발송
- 9월 18일 국가보안법 반대 범국민연대 창립식 - 기독교회관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질의서 발송
- 9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간담회 참석
- 9월 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 - 명동성당 들머리
- 9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결성 및 기자회견
- 9월 30일 제2차 워크샵 개최 - 전진상 교육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이미데오 수녀님 방문



1999년 활동보고서

10월

- 10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1차 범국민행동의 날' 참석
- 장우사마 지도위원님 연대사
- 10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철수
사제단 결성 25주년 기념미사 참석
- 10월 5일 재미한청년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단체 성명서 접수
- 10월 6일 시민의 신문 '민간단체총람2000'에 천주교연대 게재
- 10월 8일 한국어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상임위원회에 순회강연회 요청
- 10월 11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자료 제출
추계 주교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사업 제안
- 10월 12일 제6차 집행위원회
- 10월 13일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방문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의 대표단 면담 요청서 접수
- 10월 1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사회단체 비상 시국회의 참석
- 천주교연대의 사업보고
- 10월 1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 10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울지역 월요미사 참석
- 10월 22일 서울지역 천주교연대 2차 회의
- 10월 26일 제7차 집행위원회 - 서울 교정사목위원회
건대 방송국 인터뷰
- 10월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2차 질의서 발송
- 10월 29일 MBC 정운영의 100분 토론 - 국가보안법 토론회 방청
- 10월 31일 천정연 희년맞이 한마당 - 국가보안법 폐지 홍보부스 설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월

- 11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울지역 월요미사 참석
- 11월 3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 11월 5일 문규현 신부 방북관련 공판 참석
스티커, 소식지 제작·발송
- 11월 8일 사제단 전국순회기도회 참석 - 명동 성모동산
- 11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앞 농성 결함(천주교연대 23명)
- 11월 16일 국가보안법 심포지엄 "국민회의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 참석
- 11월 17일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총회 - 국가보안법 폐지사업 제안
- 11월 23일 제8차 집행위원회
- 11월 29일 광주대교구 국가보안법 시국미사 참석
- 11월 30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국회앞 시국미사 및 철야농성



12월

-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 국회앞 철야농성 참석
- 12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문화제 - 경희대
- 12월 6일 부산교구 천주교연대 인권문화제 참석 출장
- 12월 8일 까리따스수도회 - 국가보안법 관련 교육자료 발송
- 12월 14일 평화방송 - 국가보안법 연내개정 불가능 방침에 대한 의견
- 12월 15일 노동일보 - 국가보안법 연내개정 불가능 방침에 대한 의견
- 12월 18일 성명서 발표 - 정기국회 폐회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12월 21일 제9차 집행위원회
- 12월 22일 '99년 국가보안법 폐지사업 단체별 평가서식 발송
- 12월 27일 광주대교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2차 시국미사 참석



국보법 폐지 미사·농성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문규현 신부)은 국가보안법 제정 51년을 맞아 11월 30일 오후4시 국회 앞에서 사제단을 비롯한 신자 1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후 사제단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와 함께 12월 5일까지 농성(사진)을 벌였다.



1999년 활동보고서

천주교연대(부산지역)-

결성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501-023/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센터 608
TEL (062)-227-6008, FAX (062)-225-1306

문서번호 : 광정평 99 - 07
시행일자 : 1999. 5. 11
수 신 : 각 단체 대표자
참 조 : 실무책임자

제 목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기구 결성 제안

†그리스도의 평화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천년 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 교구 정평위를 비롯한 천주교 각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대의에 동감하면서도 그것을 결집된 힘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정평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각 교구 정평위와 기타 각 교구 기구나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각 단체 대표자모임을 제안합니다.

- 아 래 -

- ◎ 일시 : 1999년 5월 27일(목) 오후 3시
- ◎ 장소 : 대전 가톨릭 교육회관(042-623-7520)
- ◎ 내용 : (가칭)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기구 결성 준비 각 단체 대표자회의
- ◎ 문의 및 연락 :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062-227-6008)

※ 첨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기구 결성 제안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준 영 신부

“국가보안법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자

취지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특수한 현실'이라는 미명하에 50년이 넘게 존속하여 왔습니다.
 온갖 형태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인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해 온 국가보안법은
 최대 피해당사자의 하나인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여전히 그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 냉전시대의 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도 결코 새로운 수 없을 것입니다.

현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검토주체가 법무부의 검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월 22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최종 합의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기독교세력의 집요한 저항이
 얼마만큼 큰 벽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을 대회년으로 선포하고 대회년의 정신과 의미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회년은 회개와 쇄신을 통해 사회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와 일치를 위해 투신하는 구원과 온종의 해입니다.
 2000년 대회년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앙금과 상처를 말씀이 치유하고
 불신과 억압의 장벽을 허무는 신앙인 각자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한국사회의 지난 한 세기는 분단의 질곡과 그로 인한 억압과 상처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중앙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20세기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회년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사회정의와 자유, 평화와 일치의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회년의 참정신을 이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기구 결성

<기구구성 및 운용>

1) 명칭

- (가)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국보법연대)

2) 목적

- 천주교 차원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한다.

3) 범위

-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수녀장상연합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교회내의 기구 및 단체를 총망라 한다.

4) 형태

- 한시적 상설기구로 한다(9월 정기국회 때까지 예정).

5) 기구구성

- 공동대표단 구성(각 단체 대표, 상임대표 선임) / 집행위원회 구성(각 단체 집행책임자) /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6) 기구운용

- 집행위원회 중심으로 하며 사무국을 설치한다(전담실무자 배치).

7) 재정

- 각 단체 분담금 및 기도회 봉헌금,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 활동비, 사업비, 운영비 등(3개월 한시)에 지출한다.

<활동내용>

1) 홍보활동

- 홍보자료집을 제작, 배포한다.
- 교회 언론 및 일반 언론, 통신 등 여론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 항의엽서를 제작하여 발송한다.

2) 천주교연대기구 결성대회

- 대표자 모임에서 논의한다.

3) 순회기도회

- 건설대회 후 각 지역을 순회하며 기도회를 개최한다.

4) 서명운동

- 선연대회와 동시에 각 본당 및 거리서명 작업을 전개한다.

5) 기타 이벤트 사업

-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천주교연대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5월 27일(목) 오후 3시에

대전 가톨릭교육회관(구 농민회관 3층)에서

각 단체 대표자 모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별첨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교회적)

1. 인간 존엄성의 존중

- 가톨릭교회 사회교리의 핵심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의 발전과 해방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의사표현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2. 희년의 정신 실현

- 가톨릭교회는 2천년 대희년을 앞두고 그 희년의 정신을 살도록 노력한다. 탄압과 해방은 희년에 담긴 큰 화두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권이 많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억압과 인권침해의 상황은 수시로 발견된다.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억압과 인권침해의 사슬을 끊는 기로이며 출발점이다.

3. 새 술은 새 부대에

- 국가보안법은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세계체제 안에서 냉전체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했다. 단 한 곳,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체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체제는, 그것의 유지 도구이며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이미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붕괴되었다.

-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2조)

이미 남북유엔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북한을 아직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더 이상 법적 구속력도 없다.(북한은 국제법적, 국제정치적, 법내계적 논리로 보더라도 엄연한 하나의 주권 국가이다)

- 북한과의 일체의 접촉과 교류를 안보침해범죄로 규정(5, 6, 8조)

개방화, 교류의 확대(정부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로 국가보안법의 주요규정이 사문화된 상황이다. 시도 때도 없이 판문점을 넘나드는 모습들을 보며 국민들은 심각한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다.

2. 내용상 문제가 많다.

- 애매모호한 규정과 포괄적 금지규정(2, 3, 4, 5, 6, 7, 8, 9조 등 국가보안법의 실제적 규정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은 이 법의 '합법적인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다.

-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처벌한다(4, 7조 등). 사상의 자유가 밖으로 표현될 때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이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3. 적용절차상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한다.

- '불법연행 → 장기간 밀실수사 → 고문 → 조서작성'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정형화된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상시적으로 상존해 있다. 수사절차의 위법성은 왜곡, 조작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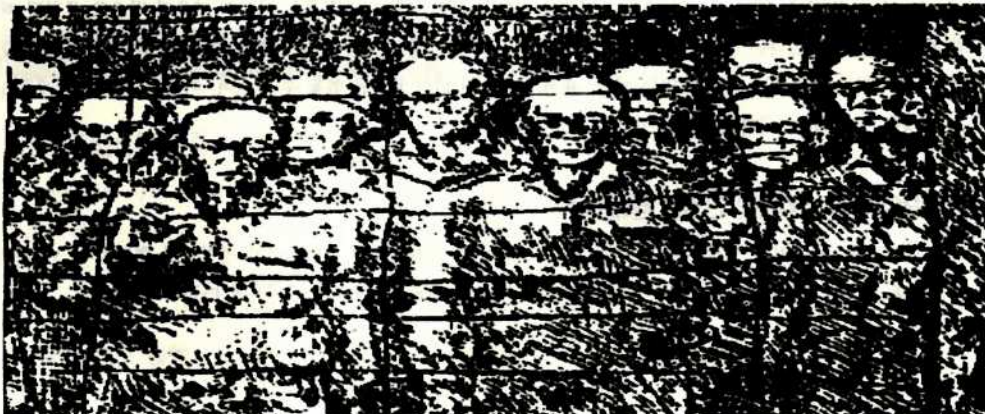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1. 그 동안(90년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내용

- 운동의 형태
 - 인권, 사회단체의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상설적인 연대기구나 한시적 공대위 운동이 전개되었다.
 - 민가협의 활동(목요집회, 양심수 위한 공연, 일일감옥체험 등)과 심포지엄 및 토론회 등과 같은 문화 및 포럼 형태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 민변 변호사 중심의 소송활동이 전개되었다. 유일하게 성과를 이끌어낸 부분으로 작지만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민민세력(전국연합, 범민련 등) 중심의 운동(집회, 홍보사업 등)이 전개되었다.
 -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 및 항의운동과 같은 국제캠페인이 전개되었다.
- 운동의 한계 및 평가(박원순 변호사)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광범위한 연대와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전략이 민민세력 내부에서도 통일되지 못했다(개폐관련)
 -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과학적, 전문적 인식이 결여되었다.
 - 운동의 대중성 확보(국민의 참여)에 실패했다.

2.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방향

- 국가보안법 사문화를 위해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지속 전개한다.(단계적, 지속적 접근)
- 광범위한 연대 및 실제 활동을 담보하는 주체세력을 형성한다.
-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이해를 위한 활동(국가보안법 전문가의 양성 및 확보)을 전개한다.
- 운동의 대중성(국민의 참여)을 확보한다.
- 국제적 홍보 및 관심을 유발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광범위한 인권교육을 수행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대표자모임 회의록

일시	1999년 5월 27일(목) 오후 3시
장소	대전 가톨릭교육회관
참석	광주정의평화위원회(이준형 위원장, 조영대 부위원장, 전경진 사무국장), 인천정의평화위원회(곽한왕 총무), 부산정의평화위원회(김현영 위원, 조신희 사무국장), 청주정의평화위원회(이은규 사무국장), 원주정의평화위원회(황인찬 총무, 윤요왕 사무국장), 수원정의평화위원회(박아순다 수녀), 광주노동사목(박비오 전담신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지현만 사무국장), 전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성수 간사), 전가청협(김경호), 전가대협(황정유 의장, 서경선)
	총 11개 단체 16명 참석

◎ 참여단체 소개

- 참여단체

- 참석 : 광주, 인천, 부산, 청주, 원주 정의평화위원회,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광주교구 노동사목 - 7개 단체
- 불참 :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환경사제모임, (사)푸른평화, 인천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인권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인천) - 6개 단체

- 참관단체(추후 가입결정)

- 수원정의평화위원회, 전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청년연합회 전국협의회,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전국협의회 - 4개 단체

- 유보단체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서울정의평화위원회 - 2개 단체

- 향후 참여 제안 단체

- 마산, 안동, 제주 정의평화위원회, 수도자(수녀)장상연합회, 우리신학연구소 등

* 현재 참관단체 포함 총 17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연대기구 결성 제안 배경

그동안 인권단체 및 시민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대위 활동, 토론회, 각종 문화행사, 국제사회의 압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펼쳐왔지만 그 활동들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는 산발적인 활동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

누군가 그 몫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각 교구나 각 단위의 힘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인식 아래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인권위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연대기구를 구성해 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 합의사항

- 모든 참여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기구 결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대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한 광주정의평화위원회에서 연대기구 결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논의하기로 한다.

- 명칭 및 목적

-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 다만 명칭은 연대기구 결성대회 전까지는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연대기구 준비위원회'라 칭한다.

- 범위

- 결성대회 전까지 참여단체의 범위를 확대한다.
- 마산, 안동, 제주 정의평화위원회와 수도자(수녀)장상연합회, 우리신학연구소 등에 참여하는 17개 단체 대표자 명의로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 형태

- 한시적 상설연대기구로 한다.
- 기간은 일단 9월 정기국회 때까지로 하고 향후 전체회의를 통해 연대기구의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 실효성 있는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상근 실무자를 배치한다.(상근자 1~2인, 자원봉사자 다수)

- 기구구성

- 고문단, 공동대표단, 상임대표,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 교회내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고문단을 구성하여 본 연대기구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구한다.
- 공동대표단은 모든 참여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본 연대기구의 상징적 대표성을 지닌다.
- 상임대표는 공동대표단 중에서 3인(교회 각 지체인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각 1인)을 선임하며 구체적 인선은 집행위원회에 임명한다. 상임대표는 집행단위와의 결합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실제 본 연대기구의 책임성을 갖는다.
- 집행위원회는 각 단체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하고 집행위원장은 본 연대기구의 실질 운영을 담당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인선한다.
- 집행위원장 : 인천정의평화위원회 박한왕 총무를 집행위원회 소집책임자로 내정하고 집행위원회의 소집 책임을 맡긴다.
- 집행위원 : 본 회의에 참석한 광주, 인천, 부산, 청주, 원주 정의평화위원회,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정의구현전국

연합 실무책임자를 우선 선임하고, 추후 참여단체의 실무책임자를 추가로 선임한다.
· 사무국은 상근실무자와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며 구체 인선은 집행위원회에 임명한다.

- 기구운용

- 본 연대기구는 집행위원회 중심으로 운용한다.
- 집행위원회에서 본 대표자모임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대기구의 일정 및 활동, 재정과 관련한 구체 내용을 마련하고, 공동대표단회의의 추진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사무국 설치 : 정의구현전국연합 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사무국 설치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 재정

- 재정은 각 단체의 분담금과 후원금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재정사업 등을 통해 마련한다.
- 집행위원회에서 사업 및 기구운용과 관련한 구체안이 마련되면 각 단체의 형평성에 맞게 분담금의 액수를 정한다.

- 활동내용(의견개선)

- 기본적으로 홍보사업, 연대기구 결성대회, 순회기도회, 서명운동, 각종 이벤트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한다.
-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인천제안)

-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발표회
- 외교적 압력 행사(세계적 정치지도자, 석학 등에 의견서 발송 등)
- 검찰내 공안세력과 면담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공안담당자 구조조정 대비한 대안 마련
- 피해자 연대기구 구성
- 개혁세력에 힘입는 작업

기타 의견)

-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예, 이적표현물 들고 검찰청 방문 등)
- 언론매체 활용한 여론형성(TV 고발프로 및 시사토론 등 활용)
- 홍보물 제작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만화 등)으로
- 항의엽서 제작(대통령, 각 정당대표, 각 지역구 의원 등에 발송, 서명접수 후 엽서 배포)
-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 질의
- 각 본당에 강론자료 및 홍보자료 배포, 프랑카드 제작 등(가능한 부수과약 후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
- 각 본당으로 나가는 공문 또는 기타 우편물에 기재되는 명의는 상황에 따라 개단위 또는 연대기구 명의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 차별화된 편지봉투 제작

- 교회내 전체 일정 확인
- 기도문 및 스티커 제작
- 결성대회시 대총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채택

- 일정

- 1차 집행위원회 : 6월 10일(목) 오후 3시, 대전 가톨릭교육회관
- 공동대표단 회의 : 7월 12일(월) 오후 4시, 서울 가톨릭회관(미정)
- 연대기구 결성대회 : 7월 12일(월) 오후 7시, 서울가톨릭회관 또는 명동성당 문화관(미정)
- 순회기도회 및 서명운동, 기타 사업의 일정 및 내용은 추후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한다.

* 기타 합의사항

- 사무국이 설치되는 대로 컴퓨터통신상에 통신방을 개설한다.
- 사무국은 인선 및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치, 운용한다.

(가칭) 국가보안법폐지 천주교연대 준비위원회 1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9년 6월 10일(목) 오후 3시~6시
장소	대전 가톨릭교육회관
참석	광주정의평화위원회(이준형 위원장, 전경진 사무국장) / 인천정의평화위원회(곽한왕 총무) / 부산정의평화위원회(조심호 사무국장) / 청주정의평화위원회(이은규 사무국장) / 정의구현전국사제단(지현만 사무국장) / 정의구현전국연합(이성수 간사) / 천주교인권위원회(김인자 사무차장) / 부천노동사목(조대원) / 가톨릭청년연합회 전국협의회(김경호) /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전국협의회(김덕성)
	총 10개 단체 11명 참석

◎ 합의사항

1. 연대기구 구성 관련

1) 상임대표

-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각 1인씩 3인의 상임대표를 추천한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문국주 상임의장) / 정의평화위원회(김영진 원주위원장 또는 이준형 광주위원장) /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 고문단

- 상임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 연석회의(6월 17일 12:30, 서울 천정연회관)에서 구성 원칙 및 인선을 결정한다.

3) 집행위원장

- 공동집행위원장 3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영우 신부) / 정의평화위원회(곽한왕 인천 총무) / 정의구현전국연합(노진민 집행위원장)

4)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역할(사업파트, 재정파트, 홍보파트, 조직파트 등)을 분담한다. 우선 재정파트 담당은 전경진(광주정평위 사무국장)과 이은규(청주정평위 사무국장)가 맡는다.
- 2차 집행위원회는 6월 23일(수) 오후 3시, 대전 가톨릭교육회관에서 갖는다.

5) 참여단체

- 참여는 전국단위의 경우 개별 단위 단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참여단체 확인은 부문별보다는 지역별 책임자를 두고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 참여확정단체 : 15개 단체
- 광주, 인천, 부산, 청주,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환경사제모임, (사)푸른평화, 인천교구 노동사목, 광주교구 노동사목,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사)우리신학연구소

- 참여 유보단체 : 6개 단체
-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6월 19일 상임위원회의에서 결정
-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논의 후 결정
- 수녀장상연합회 : 논의 후 결정
- 남자수도사장상연합회 : 6월 18일 상임위원회의에서 결정
- 가톨릭청년연합회 전국협의회 : 6월 12일 상임위원회의에서 결정
-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전국협의회 : 6월 19일 상임위원회의에서 결정

- 추후 참여확인 단체
- 미확인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안동, 마산 등)
-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각교구 본부
- 정의구현전국연합 산하단체(목포연합, 노동사목협의회, 장기수가족후원회, 빛두레신앙인학교, 천주교여성공동체 등)
- 각 교구 청년연합회 및 대학생연합회
- 예수살이공동체

6) 사무국

- 사무국은 천정연회관에 두는 것으로 하고, 사무국 입주식은 6월 17일(목) 12시에 갖는 것으로 한다.
- 실무자 및 봉사자
- 상근실무자 : 김경호 예로니모 형제(광주 청년연합회 교육차장)를 추천한다.
- 자원봉사자 : 이성수 형제(정의구현전국연합 간사) 포함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예수살이공동체 등에서 협조한다.

7) 기획·정책위원회 구성

- 기획·정책위원으로는 천주교인권위원회(1명), 정의구현전국연합(1명), 정의평화위원회(1명), 남상덕 형제(전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국장)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이 기획·정책위원회의 책임을 맡는 것으로 한다.

2. 활동 일정

1) 기본 일정

- 6월 10일~7월 11일
- 인선·사업안 마련과 폐지 여론 만들기 운동안 마련
- 7월 12일
- 결성대회 -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연대를 촉구하는 정당 사회단체 연대 촉구 성명서 채택
- 7월 12일~8월 중하순
- 폐지여론 만들기 운동 집행
- 8월 중하순~10월 초
- 폐지 실천운동과 법 폐지 근거안 마련
- 9월 중순 이후
- 국회에서 법 폐지운동에 역량 집중시키고 필요한 사업을 배치한다.
- 1차 마무리
- 폐지 법안 운동의 결과를 점검하면서 기구 존속과 향후 일정을 만든다.

2) 구체 일정

- 사무실 입주식 : 6월 17일(목) 12:00(천정연 회관)
- 상임대표 및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 6월 17일(목) 12:30(천정연 회관)
- 2차 집행위원회 : 6월 23일(수) 오후 3시, 대전가톨릭교육회관
- 이후 활동일정은 추후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한다.

3. 사업내용(안)

1) 폐지 여론 만들기 운동

- 홍보물 제작(엽서, 유인물, 스티커, 기도문(분단, 통일 포함))
- 종교기관(타종교 포함) 언론매체 활용
- 국회의원에 국가보안법 질의서 발송
- 여론 주도층에게 국가보안법 질의서 발송
- 타종교나 사회단체와 연대 틀을 마련하는 것은 추후 검토한다.

2) 폐지 실천운동

- 서명운동
- 미사나 설명회
-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발표회 및 피해자 연대기구 마련(연계하여 추진)
- 국보법 어기기 운동
- 피해자 연대기구 마련
- 일반 언론매체 활용 극대화
- 외교적 압력 사업 추진 및 공안 세력 면담과 정책 토론회(공안 담당 구조조정 대안 마련 포함)는 한시적 활동에서 포괄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에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입법 운동(폐지를 위한 국회 활용)

※ 국회 법안 개정·폐지 절차

(1) 소개 의원 방식 - 1인 이상의 의원을 교섭하여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

(2) 단체 제출 방식 - 안을 만들어서 3당 정책위에 제출한다.

- (1), (2) 공히 국회에 법률 폐지 취시 양식이 있으므로 양식에 준해서 만든다.

- 개정·폐지안이 그 해에 논의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 정기 국회는 9월 11일 이다.

- 법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의 입법 담당 부서에 접수된다.

- 임시 국회에서도 폐지가 논의 될 수는 있다.

4. 재정

- 각 단체 부담금은 10만원 이상(지역부문의 청년, 학생 단체를 고려하여 10만원을 하한선으로 정하였고, 여타의 단체는 최대한 많은 부담금을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특별히 각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모범을 보인다)으로 하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통장은 사무국이 설치되는 대로 바로 개설한다).

- 재정파트 담당 집행위원(전경진, 이은규)이 구체적인 재정 관련 안을 마련한다.

5. 기타

- 지난 5월 27일 대표자모임의 결정 가운데 고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교회내 명망가"를 "교회내 지도자"로 수정한다.

- 개별 수도단체의 참여를 독려한다.

- 그동안 행해진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의 현황을 정리한다.

결성대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대회

- ◆ 일시 : 1999년 7월 12일(월) 늦은 7시
-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식 순

사회 - 양준석(집행위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 시작 전례
독서 로마서 2장 1~11절
묵상
- 경과보고 : 이준형 신부(공동대표,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내빈소개
- 참가단체 소개
- 상임대표 인사 : 김영진 신부(상임대표,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격려사
- 연대사 :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오종렬 상임의장(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연대)
- 사업계획 발표 : 곽한왕(공동집행위원장,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 축하공연
- 결성선언문 : 이영숙 수녀(상임대표)

경과보고

- 1999년 5월 11일 : 결성제안
 -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교회내 각단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의 결성을 제안.
- 1999년 5월 27일 :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각단체 대표자모임
 - 11개단체 16명이 모여 기구구성, 형태, 재정, 활동내용, 일정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준비위를 구성.
- 1999년 6월 10일 : 연대기구 준비위 1차 집행위원회
 - 대표자모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획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에 대한 합의.
- 1999년 6월 17일 : 사무국 입주식 및 준비위 1차 연석회의
 - 참여단체확대와 기구구성 원칙에 대한 합의, 재정안 마련.
- 1999년 6월 24일 : 준비위 2차 연석회의
 - 참여단체 현황, 조직 및 인선사항 파악,결성대회 관련사항 논의.
- 1999년 7월 1일 : 기획위원회의
 - 사업구조와 방향에 대한 논의, 사업안, 예산안, 연대의 원칙 등 논의.
- 1999년 7월 2일 : 사업위원회
 - 결성대회 준비에 대한 세부사항 점검.
- 1999년 7월 8일 : 준비위 2차 집행위원회
 - 사업계획안 확정, 참여 단체, 고문단, 지도위원단 섭외는 계속 추진.
- 1999년 7월 12일 : 공동대표단 회의, 결성대회.

결성취지

교회는 2000년을 대회년으로 선포하고 대회년의 정신과 의미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회년은 회개와 쇄신을 통해 사회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와 일치를 위해 투신하는 구원과 은총의 해입니다. 2000년 대회년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양금과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불신과 억압의 장벽을 허무는 신앙인 각자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특수한 현실'이라는 미명하에 50년이 넘게 존속하여 왔습니다. 온갖 형태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인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해 온 국가보안법은 최대 피해당사자의 하나인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여전히 그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 냉전시대의 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견제하는 한,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도 결코 새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회년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사회정의와 자유, 평화와 일치의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회년의 참정신을 이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참가단체》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대교구 노동사목/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부산교구 공부방연합회/부산교구 노동상담소/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세우리신학연구소/세푸른평화/인천교구 가톨릭 환경연대/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울,춘천,원주,청주,대전,광주,전주,안동,부산,마산,제주교구대학생연합회)/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부산·광주지역 가톨릭청년연합회)/전국환경사제모임/천주교 인권위원회/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가톨릭 노동사목 전국 협의회,천주교 정의구현 목포연합, 빛두레신앙인학교,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 장기수 가족 후원회, 천주교 도시민민회, 천주교 청년공동체, 인천교구 가톨릭 청년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서울,인천,수원,원주,청주,대전,전주,광주,안동,대구,마산,부산본부)/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이상 가나다순)

함께 하시는 분들

● 고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나길모 주교, 유현석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 지도위원

평신도

곽노현, 구영식, 김동주, 김병선, 김민배, 김상덕, 김용수, 김혜경, 나간채, 문재인, 박봉자, 박순희, 박영일, 서석구, 성 엄, 엄종희, 오창래, 윤순녀, 윤영진, 윤장현, 이각희, 이진영, 이국성, 이규정, 이명준, 이재균, 이재희, 이창복, 이충각, 이필립, 정성원, 정용기, 정용태, 정향자, 최병모, 추규영, 하동삼, 홍성훈, 황보윤식, 황세현

수도자

손인숙, 양운기, 장루시아, 최이레네.

성직자

강희성, 김병상, 김승훈, 김영필, 김영옥, 김영호, 김인국, 김택암, 남국현, 류강하, 리수현, 문정현, 박윤정, 박창일, 배은하, 송기인, 송홍철, 신성국, 신순근, 신현봉, 안충석, 오경환, 원유술, 이현로, 장용주, 정규완, 정형달, 조철현, 조호동, 최기식, 최승오, 함세웅, 호인수, 황상근

●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문국주(천정연 상임대표), 이영숙 수녀

● 공동대표

곽동철(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곽준석(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김계홍(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 김원호, 신대운, 여이기(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종운(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 김진화(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김향섭(새우리신학연구소),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김홍진(서울대교구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형두(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박병훈(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박비오(광주대교구노동사목), 양영수(제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이성균(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이영우(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준형(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정홍규(새부른평화, 전국환경사제모임), 조성재(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 조옥중(부산교구노동상담소), 최민석, 이진선(한국가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최승근(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황정유(전국가톨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 공동집행위원장

곽한왕(정의평화위원회), 노진민(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이영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집행위원회

- 기획위원회
- 조직위원회
- 사업위원회

● 사무국장

김경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이런 사업을 펼칩니다

1) 서명운동

결성대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프랭카드, 유인물 제작과 병행)

2) 순회기도회 (자전거 순례와 결합)

8월 15일 출발하여 국회 개원까지 자전거로 전국을 순례하고 지역별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계 지도자 선언

2000년 대회년의 의미를 살려 관구별로 2000인 선언을 조직하여 기자회견과 신문에 광고합니다.

4) 심포지엄(토론회)

워크숍을 거쳐 9월초에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 폐지입법 청원운동

국회개원과 동시에 선언과 서명운동 성과를 모아서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6) 홍보물 제작

항의엽서와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결성선언문

오늘 우리는 세기적 격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현재의 시점은 개인들의 삶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개별국가, 그리고 지구촌으로 표현되는 세계 전체에 하나의 도전의 시기입니다. 개발과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한편 새 천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엇갈려 펼쳐지는 역사의 교차점이 바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 서서 미래의 기대와 희망보다는 과거의 회고와 반성이라는 화두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의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과거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너무도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분단의 절곡과 그로 인한 억압과 상처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분단의 역사에서 이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분단의 역사, 억압과 탄압의 암울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20세기 한국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오늘, 이른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효하게 통제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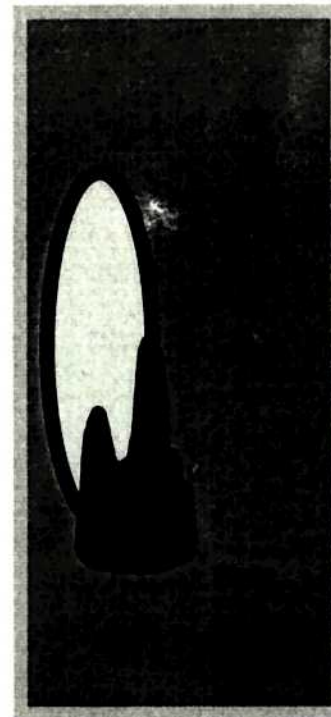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을 목전에 두고 2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한국천주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희년의 정신을 선포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의와 자유의 신장, 그리고 평화와 일치의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희년의 정신을 이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를 결성하고, 범국민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어떠한 대체입법 시도도 거부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999년 7월 1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회비와 후원금을 받습니다.

국민은행 031-21-0788-334 곽한왕
우체국 013201-0030771 곽한왕
농협 029-02-187620 곽한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사업자료

서명운동 · 2000인 선언.....43

순회기도회 · 자전기순례.....53

집의서 보내기 운동.....74

단식기도.....78

순회강연회.....79

심포지엄 · 워크샵.....81

교구별 활동.....14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kukbobub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17
시행일 : 1999. 8.
수신 : 각 본당 신부님, 각 참가단체
참조 : 사회사목분과장님, 사무장님, 집행책임자

제 목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순회기도회, 서명운동 및 선언운동 협조요청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 저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지난 7월 12일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 등 교회내 여러단체가 참가하여 결성대회를 가지고 8월 15일부터 전국순회기도회 및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시까지 1차로 집중적인 폐지운동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3. 이 운동은 2000년 대화년을 맞이하기 위한 실천사업의 의미를 지닌만큼 순회기도회 및 본당별 서명운동, 선언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서명용지와 선언용지는 각교구 정의평화위원회나 참가단체 사무국, 천주교연대 사무국으로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2-747-2448, FAX 02-747-2447)

- 별첨 : 1. 연대기구 조직구성표와 사업 계획 초안 1부.
2. 서명용지 1부.
3. 2000인 선언용지 1부.
4. 순회기도회 사업계획서 1부. 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영숙 수녀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교회는 2000년을 대회년으로 선포하고 그 정신과 의미를 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회년은 회개와 새신을 통한 사회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와 일치를 위해 투신하는 구원과 은총의 해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특수한 현실'이라는 미명하에 50년이 넘게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회년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회년의 참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번호	이름	단체	주소	서명	나도 한마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 kukbobub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분단의 질곡과 그로 인한 억압과 상처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분단의 역사에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분단의 역사, 억압과 탄압의 암울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20세기 한국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오늘, 이른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효하게 통제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전에 두고 2천년 대회년을 준비하는 한국천주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음 안에서 대회년의 정신을 선포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회년의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에서 추진하는 천주교 2000인 선언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 이 선언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선언의 내용을 신문광고(한겨레, 평화, 가톨릭신문)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선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1인당 5천원씩의 광고비용을 부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 031-21-0788-334, 우체국 013201-0030771, 농협 029-02-187620 예금주 관한왕> (광고예정일 : 한겨레신문 8월 26일자 / 평화·가톨릭신문 8월 29일자)

성명	직책	주소	전화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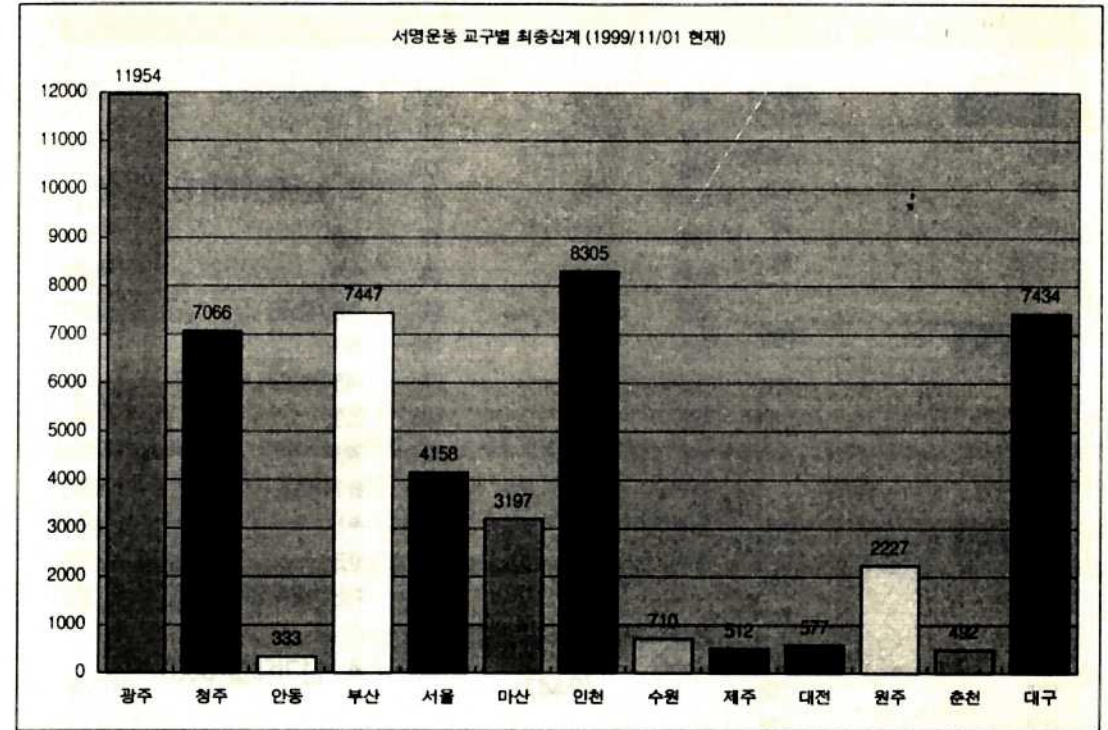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영운동	230
오송	112
오창	148
오충	275
용암동	107
이원	66
증평	87
지현동	236
청산	10
학산	95
혜원장애인 종합 복지관	37
흥덕	124
사창	292
내덕1동	69
옥행동	87
안동합계	333
함창	112
가은	88
봉화	59
안계	74

부산합계	7447
일반	4579
전포	12
염포	41
구봉	155
우동	105
문현	306
삼랑진	90
남창	23
무거	315
망미	451
용호	302
석포	124
메리놀 병원	12
과정	115
당감종합사회복지관	15
서면	114
남산	611
물운대	77

서울합계	4158
일반	1052
구리	730
길음동	1521
해방촌	178
봉천1동	457
압구정	22
천주교 도시빈민회	28
창 4동	96
길동	74
마산합계	3197
일반	604
남성동	187
진동	4
상남	46
여좌	225
반송	400
남해	86
중동	97



목포	334
신안	69
진동	57
하동	89
의령	100
수산	74
사파동	187
덕산동	262
석전	89
경화	287
인천합계	8305
만수3동	816
강화	198
일신동	72
가좌동	232
동춘동	29
주안5동	421
만수1동	156
산곡동	203
간석2동	642

용현5동	335
서곶	135
구월1동	72
효성동	422
주안8동	914
제물포	126
도화동	191
부평4동	92
연안동	191
기차길옆공부방	15
장기동	123
갈산동	535
산곡3동	140
아외서명	488
부평3동	65
삼동	382
석남동	297
해안	45
소사	346
오류동	74
계산동	548

수원합계	710
이천	250
대학동	59
산본	284
명학	117
제주합계	512
남원	64
표선	25
효돈	48
하귀	116
금악	48
서귀포	211
대전합계	577
궁동	165
금사리	48
가톨릭대 사회교리동아리	99
홍성	265

원주합계	2227
일반	1838
황지	225
원주	76
천곡동	88

춘천합계	492
후평동	268
청평	128
송우리	96

대구합계	7434
고성	191
금호	107
대곡	79
대명	108
대봉	128
대잠	369
대현	210
덕수	31
도동	51
동인	164
만촌	453
반야월	186
벌어	160
복자	163
복현	327
상동	526
성동	377
성북	145
성서	65
성주	47
송현	239
수성	309
신동	81
신암	323
신평	192
안강	107
약목	59
용계	158

원평	250
인동	61
장성	120
죽전	47
지좌	47
진량	48
초전	44
침산	140
큰고개	275
태전	585
하양	35
형곡	78
황금	165
효목	184

2.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2447)

일반	1296
가르멜 수도원	14
가르멜 여자 수도원	15
그리스도의 교육수도회	28
글리리 수도원	15
까리따스 수도회	427
노를담 수도원	10
노를담 수도회	21
동정성모회	15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시스코 수도회	70
보혈선교수녀회	21
살레시오 여자 수도회	25
성모 승천 봉헌자 수도회	8
성바오로딸 수도회	90
성심수도회	16
스승 예수께의 제자 수도회	67
예수성심시녀회	92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14
작은자매 전교회	11
착한 목자 수도회	10
착한목자수도회	69
트라피스트 수도원	26
포교성베네딕도수도회 대구 수녀원	61
한국외방선교수도회	12

한국외방선교수도회	14
3. 순례단(7317)	
서울	341
인천	489
수원(대천동)	287
청주	270
대전이하(김제, 부안, 삼례)	54
전주	86
일반	3501
광주(목포)	296
부산	1090
춘천	535
마산(가음동 297포함)	368

4. 전가대합(909)

5. 농성장(1005)

총계 : 66090

*** 참고**

1. "일반" 항목은 서명자의 소속단체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2. "전가대합"은 자체 순례단의 서명결과를 제출한 것입니다.
3. "농성장"은 1999년 9월 이후 명동성당의 천주교연대 농성장에서 받은 서명결과입니다.
4. 1999년 11월 2일 이후 우편으로 도착한 서명용지가 있었지만, 국민항원 제출서류에 첨부되지 못하여 여기에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순회기도회 사업계획안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일시

1999년 8월 15일(일) ~ 9월 13일(일) : 28일간

◆취지

2000년 대회를 준비하는 교회의 실천적 행동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을 교회 구성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린다. 이를 위해 전국 14개 교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지향으로 미사나 기도회 개최, 가두서명 등의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홍보효과와 교육효과는 물론 대정부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순회기도회와 동시에 서명운동, 2000인 선언운동 및 신문광고의 성과를 모아 정기국회 개최전에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시킨다.

◆진행

천주교연대 본부의 순례단은 전국을 순례하며 최대한 많은 본당과 각 교구 교구청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높이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지역참가단체는 순례단의 지역도착 일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지향을 가지고 미사나 기도회를 개최하며, 미사나 기도회 개최전후에는 지역참가자들과 함께 지역순례를 하고 가두서명운동을 벌인다. 지역별로 다음 지역까지 며칠동안 함께 순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홍보

홍보는 참가단체 소식지에 계속해서 실릴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등에 순회기도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홍보한다. 8월 15일 출발시에는 교계신문 및 일간지에 실릴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사화를 요청한다. 이후 활동상황은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1999년 활동보고서

순례코스 및 세부일정

◆준비물

순회기도회 차량(봉고 12인승), 가두서명 준비물(책상, 의자, 홍보판 등), 홍보물(시명용지, 리플렛, 유인물, 자료집 등), 천주교주소록, 전국도로지도, 교구별 담당자 연락처 등.

◆참고사항

- 이번 전국순회기도회는 지역별 행사와 결합하여 지역순례와 가두서명, 매일기도회(미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도회가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근성당 미사에 참여해서 홍보와 서명을 주된 활동으로 전개한다.
- 지역 정평위가 존재하지 않은 곳이나 활동이 미미한 곳은 사제단 및 지역분당과 긴밀히 협조한다.
- 사업위원장은 전구간을 총괄하고 사업위원들은 구간별로 결합하기로 한다.
- 15일 출정식 행사안은 천정연과 협의하기로 하고 16일 사제단 미사 결합안은 사제단과 협의하기로 한다.

◆ 지역준비사항

- *지역참가자(다음구간까지 함께 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역순례단장 섭외)
- *지역순례코스(순례단이 오전중에 순례할수 있는 코스선정, 다음구간까지의 코스답사)
- *지역행사프로그램(관련 행사준비(미사나 기도회) - 사업계획안 마련)
- *순례단 숙식제공(일정 고려해서 1박이나 2박, 머무는 동안의 식사)
- *다음지역까지의 순례참가자 모집
- *지역언론 홍보는 지역에서 담당

* 순회기도회 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날짜나 기도회(미사) 장소는 지역별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정평이나 단체에서 차량, 지역순례인원 및 순례단 대표, 코스, 숙식, 지역행사프로그램, 다음구간과의 연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02-747-2448)으로 문의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일정	지역명(체류장소)	활동내용	비고
8월 16일(월)	서울대교구(서울)	출정식	명동성당
8월 16일(월)	서울대교구(서울)	명동 가두서명(11시- 1시) 문신부 파복 10주년미사(2시)	숙소 : 천정연 회관
8월 17일(화)	인천교구	교구청 방문, 거리서명운동	숙소-인천정평위 담당
8월 18일(수)	인천교구(인천)	지역 순례,기도회(8시 가톨릭 회관)	.
8월 19일(목)	수원교구 (안성-대천동)	교구청 방문, 미사	숙소- 대천동 성당
8월 20일(금)	청주교구(대소성당)	미사	숙소- 대소성당
8월 21일(토)	청주교구(청주) (광혜원,음성 경유)	지역순례,거리서명운동	숙소-청주정평에 요청
8월 22일(일)	청주교구(청주)	오전미사 결합,대전으로	숙소-천안 성황동 성당
8월 23일(월)	대전교구(대전)	교구청방문, 거리서명운동 도마동 성당 등 방문	숙소-가톨릭교육회관 오명관 신부
8월 24일(화)	전주교구(용안)	연우, 이리지역, 성당방문	숙소-용안성당
8월 25일(수)	전주교구(전주 아침도 학)	교구청방문,거리서명운동	숙소-서학동성당
8월 26일(목)	전주교구(전주)	자전거순례(3시-6시) 미사(7시 전통성당)	숙소-전주교구사제단 담당
8월 27일(금)	전주교구(군산)	군산미군기지 시위동참	숙소-전주교구사제단
8월 28일(토)	김제, 정읍, 수류순례	미사	숙소-수류성당 (최종수신부)
8월 29일(일)	광주대교구(광주)	거리서명운동	숙소-광주 정평위담당
8월 30일(월)	광주대교구(광주)	자전거순례(10시-5시) 미사(7시,대주교님 집전, 북동이나 입동)	.
8월 31일(화)	광주대교구(목포)	광주-목포 자전거순례 기도회(웅당동 성당)	숙소-천정연 목포연합 담 당
9월 1일(수)	제주교구	목포순례후 제주로	숙소-고병수신부 담당
9월 2일(목)	제주교구	교구청 방문, 기도회	숙소-여객선
9월 3일(금)	부산교구(부산)	지역순례(도보, 자전거) 거리서명운동	숙소-부산정평위담당
9월 4일(토)	부산 - 마산교구	부산-참원 자전거순례	숙소-사회교육회관
9월 5일(일)	마산교구(마산)	교구청 방문, 지역순례 거리서명운동, 미사	.
9월 6일(월)	대구대교구(대구)	교구청방문,거리서명운동,미사	숙소-정홍규 신부님
9월 7일(화)	안동교구(상주)	거리서명운동, 미사	숙소-천정연상주연합
9월 8일(수)	안동교구(안동)	문경, 예천 경유	숙소-안동 정평위 담당
9월 9일(목)	원주교구(제천)	미사, 거리서명운동	숙소-김영진신상임대표
9월 10일(금)	원주교구(원주)	미사, 자전거순례, 거리서명운 동	숙소-원주정평위 담당
9월 11일(토)	춘천교구(춘천)	미사, 거리서명운동	숙소-사제단 섭외
9월 12일(일)	춘천교구(춘천)	거리서명운동, 본당방문, 미사	숙소-춘천
9월 13일(월)	서울대교구(서울)	기도회개최	해단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순회 기도회 일정

◆ 일정 : 1999년 8월 26일~9월 12일

◆ 총구간 : 4740km 주행 (일일 169km)

◆ 연참석인원 : 중앙순례단 156명(일일 6명), 지역순례단 562명(일일 20명)

◆ 순례성당(기도회, 미사)—33곳

인천교구 : 부평1동간석2동담동가톨릭회관 수원교구 : 대천동
 청주교구 : 대소 광혜원 사천동 내덕2동
 전주교구 : 익산 용안 합일 봉동 신태인 부안 동산 전동 서학동 수류
 광주교구 : 북동 용당동 북교동 부산교구 : 만덕 초량 전포 밀양
 마산교구 : 가음동 대구교구 : 김대진
 안동교구 : 계림동 목성동 모전 원주교구 : 의림동 원동
 춘천교구 : 효자동

◆ 순례단 강론 본당—5곳

인천, 수원대천동, 대구 김대진, 상주 계림동, 청주 대소

◆ 순례성지—10곳

안성 미리내성지, 죽산성지, 배티성지, 나바위성지, 여산(송정어)(백지산터), 천호성지, 백산, 배론

◆ 거리선전전

부평—문화의 거리	인천—동인천역 광장 / 신포시장×2	
청주—시내 성안길	전주—코아 백화점 앞	군산—미군기지 시위 동참
광주—전남대 / 북구청	목포—버스 터미널 / 차없는 거리	
부산—태화백화점 / 롯데백화점 / 남포동	마산—창동네거리	
창원—정우상가	대구—대구교도소 앞	상주—시내 일원
안동—조흥은행 앞	원주—농협사거리 / 원주시청 제2청사	춘천—명동

◆ 참여사제 — 77명

김병상(부평1동) 정병철(간석2동) 박병훈(국보연대인천공동대표) 김영덕(성소국장) 이재학(청년사목부) 방상복(안성대천동) 신성국(음성 대소) 김인국(청주 광혜원/정평 총무) 신순근(청주 내덕 2동) 광동철(청주 사천동) 박종근(천호성지) 문정현(익산 작은자매의 집) 문규현(전주 서학동) 리수현(전주 용안) 최종수(전주 수류) 김행수(전주 덕진) 김봉술(전주 오수/사제단 총무) 정식수(전주 숲정어) 김진화(전주 동산/전주교구 사제단 대표) 이영우(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김선태(전주교구 신학원 부원장) 오정선(전주교구 사목국 부국장) 김병희(전주 전동 보좌) 정성만(전주 신앙) 조영대(광주 북동) 박비오(광주 노동사목) 정현호(대천동 보좌) 이상돈(안성 구포) 김영관(안성 던지실) 천장철(광주 두암동) 송훈철(광주 농성동) 천정선(광주 곡성) 허우민(광주 우수영) 이호(광주 지산동) 양인경(광주 나루) 이호준(광주 문흥동) 이준형(목포 북교동) 김계홍(목포 용당동) 표양권(목포 용당동) 이영선(목포 영광) 이봉문(광주특수사목—공소전담) 오수성(대성동) 유영일(부산특수사목—농촌사목) 윤희동(부산 초량) 조옥종(부산 장유) 김혜영(부산특수사목—해양수산) 조성재(부산특수사목—빈민) 이성균(부산 반송) 김상호(울산 덕신) 백남해(창원 용잠) 광준석(마산사회사목/사회교육회관관장) 이상원(밀양 수산) 남경철(마산 진례) 허성학(창원 가음동) 정홍규(대구푸른평화/교구청사회사목) 신대원(상주 계림동) 우병현(상주 남성동 보좌) 신기룡(상주 옥산) 최승근(안동 송현동/안성교구정평위원장) 김영진(제천 남천동) 고정배(단양 매편) 김찬진(제천 백운) 위종우(제천 청전동) 김승오(제천 서부동) 이홍근(의림동) 최영균(의림동) 최기식(사회복지) 정인준(원주교구청 사무국장) 신현안(원주교구청 사목국장) 박호영(황성) 광호인(원주 단구동) 유명구(원주 봉산동) 신동민 김현수(교구청 교육국 차장) 홍광표(원주 일산동) 최종복(원주 원동) 배도하(원주 우산동)

◆ 연대단체 — 36곳

인천청년연대	인천환경연대	부평노동사목	정평위(인천, 청주, 광주, 부산, 원주, 안동)
천주교인권위	인권연론개혁위	청주정평위	음성농민회
가대연(부산, 진주, 광주, 원주, 춘천, 서울, 마산, 목포, 청주)			
청주 농아선교협의회	익산 작은자매의 집		
전주 기아특수강 해고자 모임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청년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국보법철폐와 양심수문제 전면해결 위한 전북연대회의			
광주 청년연합회	전국연합광주전남연합		
민주노총 광주지부	목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목포 민주시민운동협의회	마산 JOC		
마산 가톨릭노동문제연구소	마산창원지구총학생회협의회		
마산지역희망연대	마산통일자료실		
마산창원진해 통일추진위	대구 푸른평화		
대구 사목국	대구가톨릭청년연합회		
안동 사회단체	부산 공부방연합회		
부산 천주교사회복지회	부산 청년연합회		

◆ 장기수 위로방문—7곳

- 봉천동 우리탕재원
- 낙성대 만남의 집
- 대전 사랑의 집
- 대전 형제의 집
- 광주 통일의 집
- 부산 최상원 선생님
- 인천 정순덕 선생 병문안(나사렛 한방병원)

◆ 순례코스

서울 부평 인천 수원 안성 대소 광혜원 청주 대전 논산 강경 용안 함열 여산 천호 신태인 부안 정읍 익산 전주 군산 수류 광주 목포 부산 마산 창원 밀양 회원 대구 상주 안동 제천 원주 춘천 서울

◆ 자전거 순례

- 전주 호남제일문 전주종합경기장 코아백화점

■ 광주

북동성당 광천터미널 광주역 살레시오수도원 전대후문 북구청

■ 광주 목포

■ 목포

버스터미널 용담동성당

■ 부산

부산역 서면태화쇼opping 전포성당 롯데백화점 부산역

■ 부산 창원 마산

■ 창원 밀양

■ 대구

옥포 회원 서부정류장 대백프라자 성김대건성당

■ 대구 칠곡 동명

■ 원주 A도로 원동성당

■ 원주 춘천 진입 원주 시계

■ 춘천

효자동 시장 농예사거리 명동 효자동

■ 춘천 춘천시 경계

■ 서울 망우동 청량리 종로 명동성당



8월 16일

11시부터 약1시간 동안 거리서명전 진행

8월16일 12시 명동성당들머리에서 순회기도회 출정식.

◆1부행사 : 전가대협 통일순례단 환영식

(사회 : 국보법폐지연대 사무국장)

- 통일순례단 소개
- 집단노래 및 율동
- 통일순례단장 인사 및 활동보고
- 순례단원 소감발표

◆2부행사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순회기도회 출정식

(사회 : 이영우 신부님)

- 시작기도
 - 상임대표 인사
 - 전국순회기도회 일정발표
 - 전국순회기도회 출정선언문 낭독 및 선서
 - 구호제창
 - 마침노래
- (약 20명이 참석하여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됨.)

3시 「문규현 신부님 방북 10주년 기념 미사」에 참석 국보법폐지연대순회기도회 단원들 신부님께 강복받음 행사후 서명작업 진행

공식적인 일정 마무리한 후 명동에서 17일 출발할 순회기도회 점검함.

◆서울 서명인원집계 341명

8월 17일

10시 명동 모임(명동 →전정연회관 →사제단 →명동)

1시 출발 : 노진민 단장, 김경호 사무국장, 이성수 천장연 사무간사, 김인자 인귀위 사무차장,이현정 장기수 간사.

1시 50분 ~ 2시15분 낙성대 "우리탕재원" 방문

2시 20분 ~ 2시 30분 낙성대 "만남의 집" 방문

3시 20분 부평도착 : 진선미 사제단 간사 결합

4시 ~ 5시 30분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거리서명운동 진행

: 부평노사목 한상욱, 김은숙 인천정평위 이명순

인천 청년연대 정정민, 안창현 언론개혁소위원회 최병래, 서병희, 김정순

7시 ~ 7시 40분 "부평1동성당"미사참석 : 광한왕 국보법연대기구 집행위원장님 결합

미사후 서명작업

8시 30분까지 점검, 평가

◆활동상황◆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거리서명전이 진행되었다. 노란색의 국보법폐지 조끼를 입으니 일단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스피커를 이용한 스피치와 유인물 배포, 이동서명전이 진행되었다.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각자 1:1로 시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였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며 아예 무관심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폐지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지금 이 법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오는 시민들도 있었다. 평가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국가보안법이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날씨도 무지 더웠고, 걸어가면서 짧은 시간 얘기하는 것이어서 요지만 짧게 말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가두서명에서의 주의 사항은 시민분과 논쟁 끝에 격해진다거나 그 자리에서의 설복은 피할 것.

부평1동 성당에는 약 6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미사

후 대부분의 신도분들이 서명을 해 주셨다.

*지역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짧은 평가 글도 함께 띄웁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시작한 서명운동. 젊은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기란 쉽지 않았다. 폭염아래 쭈그리고 받은 서명의 가치가 잘 반영되길 바란다.

인천정의평화위원회(언론개혁소위) 서명회(헤레나)
-국가보안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았고 세세히 설명한건 힘들었다. 유인물의 내용도 미비하다는 생각을 했다. 노점상인 아저씨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다. "그냥 지들끼리 해 먹으라고 그러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인천정의평화위원회(언론개혁소위) 김정순(리나)
-폭죽 찌는 날씨여서 힘들었지만 이 땀방울이 모이고 모여 국가보안법이 철폐 된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인천정의평화위원회 이명순(산다르크)

8월 18일

- 10시 간석 2동 미사 : 노진민 단장님
- 만석동 기차길 옆 공부방 방문
- 인천 환경연대 방문
- 4시 ~ 6시 동인천역광장 거리서명운동 : 노진민 단장, 인천청년연대 대표 김상용
- 인천정평위 이명순, 강성준(국보법폐지연대 사무국)
- 8시 ~ 9시 20분 담동 가톨릭회관 6층 소성당 기도회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기도회"
- 단장님 강론
- "나는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 노진민 단장, 김상용, 이명순, 강성준, 김경호, 이성수, 이현정, 이은혜(인권위 간사), 김연옥(사제단 간사), 정민희(동가대연 의장)
- 10시 20분까지 담동 청년회 분들과의 만남의 시간
- 숙소 : 한국순교복자수도회(만수동 성안드레아 피죄의

집)

◆활동상황◆

동인천역 광장에서 4시에 시작하여 6시에 끝났다. 지하철과 인근상가를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았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면서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수적인 경향의 시민들이 많아서 서명받기가 힘들었다.

담동가톨릭회관 6층 소성당에서 진행된 미사에는 약 8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였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기도회였던 만큼 '국가보안법 철폐'를 시작으로해서 제 1독서는 장기수 호형식 선생님의 편지글과 단장님의 '나는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주제로 약10분간의 강론. 마침노래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철폐와 통일의 한마음으로 똘똘 미사였다. 미사후 서명은 이전부터 해 왔던 거라시 무난히 진행되었다.

- *미사 공동집전 : 인천공동대표 박병훈 신부님
- 성소국장 김영욱 신부님
- 청년사목부 이재학 신부님

◆인천교구 서명인원집계 489명

8월 19일

- 8시 기상, 식사
- 9시 서명용지 점검
- 10시 복자수도회 출발 : 노진민 단장, 김경호, 이은혜, 이현정, 강성준
- 10시 10분 ~ 30분 장기수 정순덕 선생님방문(인천 나사렛 한방병원 605호)
- 12시 수원도착
- 12시 25분 점심
- 1시 30분 ~ 2시 수원교구청 방문(수원교구장 신부님

과 사회복음화위원장 신부님 뵙다)

- 3시 45분 ~ 4시 30분 미리내 성지방문
- 5시 30분 수원교구 대천동 성당 도착(안성) : 지현만(사제단 사무국장님) 결합
- 방상복 신부님 뵙고, 저녁, 플랭카드 부착
- 7시 미사시작 전 서명작업
- 7시 30분 ~ 8시 30분 미사
- 미사 후 서명
- 대천동 성당 옆 사제관에서 숙

◆활동상황◆

거리서명전이 없어서 그런지 웬지 다른 날보다 땀을 덜 흘렸다는 느낌. 장기수 선생님이신 정순덕 선생님을 방문하여서는 많은 얘기는 못하였지만 곳곳하게 투병생활을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되어야지"하시며 일일이 단원들과 힘있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1시 30분 경에 수원교구청을 방문하였고, 저녁에 갔었던 대천동 성당이 감동이었습니다. 단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닭백숙도 준비해 주셨구요. 인근지역 신부님들과 함께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3곳의 본당이 모였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550명이 넘는 분들이 미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진민단장님이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신앙적 고찰'이란 주제로 20분간의 강론을 했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 주시고 미사의 주제도 국가보안법폐지로 초점을 맞춰 뿌듯하게 마칠수 있었습니다. 미사 후 거의 모든 분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다.

- *대천동 성당 미사 공동 집전
- 대천동 본당 : 방상복 신부님
- 구포동 본당 : 이상돈 신부님
- 던지실 본당 : 김영관 신부님
- 대천동 보좌 : 정현호 신부님
- 새벽 5시 30분 미사참석 : 노진민 단장님
- 서명

8월 20일

- 8시 기상
- 9시 대천동 성당 떠남
- 9시 50분 죽산성지 방문(이용남 신부님 만남)
- 11시 30분 ~ 12시 배티성지 방문
- 8시 30분 ~ 9시 30분 음성(성요셉성당)대소성당(신성국 신부님 뵙)

: 노진민 단장, 이은진(청주 정평위 사무국장), 이효신 간사 최재근(음성농민회), 이영우(서가대연 의장), 황영우, 이지형, 온정연

◆활동상황◆

9시 30분 ~ 12시 순회기도회팀과 지역신자와의 뒷풀이

노진민단장님이 일찍 일어나 새벽미사에 참석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열의가 대단하시죠.

저녁미사는 음성 대소성당에서 8시 30분부터 신자70여분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순례미사' 거행. 강론에서 노진민단장님은 '실정법과 양심법사이에서 양심을 따랐던 것이 신앙인들의 순교정신'이었다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호소.

신성국 신부님의 공지에 따라 순례단 도착전에 성당. 반별로 서명작업을 진행하여 순회기도회팀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와 호응도가 좋았다. 주 참여자들이 연세가 할머니들과 장년층이었는데 청년들의 참여가 여느 시골 성당과 비슷해 아쉬웠다.

8월 21일

- 8시 기상
- 10시 ~ 10시 30분 광혜원 성당-김인국 청주교구 총무 신부

: 노진민 단장, 이효신, 이현정, 이영우, 황우영, 은정연, 이지형

3시 30분 ~ 5시 청주시내 성안길 서명운동
: 이은규, 이효신, 이현정, 예진, 예진, 미연, 이성재 (주교좌성당 농아선교협의회 교사) 유범규, 박상원, 임지용, 박승찬, 허진숙 외 2명(가대청협) 농민회사무국장 조철호

7시 10분 노진민단장, 신승근신부 면담
7시 50분 ~ 9시 청주 주교좌 성당 미사 : 노진민단장, 이은규사무국장, 이효신, 이현정, 강성준, 유범규외 1인

◆활동상황◆

오전에 들른 광혜원 성당에서 신부님과 얘기함.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자율적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씀이었다.

이 후 주교좌 성당으로 갔다가 서명을 받으러 시내에 가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걱정을 했으나 이내 그쳤다. 약 1시간 30분동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서명전을 전개하였다. 서명책상을 설치하고, 이효신 간사님이 계속 스피커를 통한 스피치를 하고, 피켓도 준비하였고, 1:1서명도 하였다. 이때까지의 서명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동유근되어서 주위의 다른 홍보활동이 많았으나 인원으로는 열의로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가장 적절한 시간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서명에도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역시 젊은 사람들이 더 무관심했고,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건지 고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녁 주교좌성당미사는 예정시간 보다 좀 늦게 시작되었다. 신자들은 약200명정도가 참석하였고, 강론 중에는 말씀이 없었고 공지사항 전달한 후에 소개받아 인사하는 정도였다. 이전부터 서명작업을 해서 역시 미사후 서명작업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청주교구 서명인원합계 약270명

8월 22일

8시 기상
9시 40분 주교좌성당에서 청가대협학생들과 결합
: 노진민 단장, 이은규, 이효신, 이현정, 강성준 가대청협 유범규, 유동진

9시 45분 사천동 성당 도착 (곽동철 신부님집)
플랭카드 부착
10시 30분 ~ 12시 미사참석
12시 30분 점심

3시 대전 "사랑의 집"도착 -장기수의 집 (함세환, 한창호 선생님 거주)
: 노진민 단장, 이현정, 강성준

◆활동상황◆

주교좌성당에서 가대청협과 결합하여 사천동 성당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던 이은규 사무국장님과 곽동철십님께 인사함. 일부는 성당입구에 플랭카드 부착.

미사 시작하기 전 입구양쪽에 들어서서 신자들과 인사함.

미사때 강론말씀에는 없었고, 공지사항 후 인사함. 지속적으로 서명작업을 전개하였다고 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7명의 서명받음. 미사끝나고 역시 양쪽으로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하며 신자들에게 인사함. 약 500명 미사참석.

대전에서 근거지를 잡지 못함. 지역과의 확실한 의사소통 필요.

8월 24일

12시 40분 대전 "형제의 집"에서 최선목 선생님 뒤편 점심식사
1시 46분 대전교구청 방문

: 사무처 과장 김장환, 관리 과장 박희준
3시 34분 논산 도착
4시 24분 강경읍 도착(개신교 교회 방문)
4시 40분 '나바위 성지' 도착
5시 20분 익산 용안성당
: 리수현 신부님
5시 48분 익산 함열성당
6시 14분 숲정이 성지
6시 22분 여산성당
6시 32분 백지사 터 성지
8시 천호성지 도착 숙

◆활동상황◆

대전 '형제의 집'에서 최선목 선생님을 뒤편 점심 먹다. 최수일 선생님은 일하러 가시고 최선목 선생님과 담화. 선생님께서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교회나 불교 쪽도 함께 해야 하지 않냐고 조언해 주셨다.

여러 곳의 성지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셨던 분들 역시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지금의 민중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느꼈다.

8월 25일

7시 30분 기상
: 노진민, 이현정, 원근호, 강성준
8시 박종근 신부님과 사제관에서 아침식사
'순교자 묘' 참배, '십자가의 길' 순례
9시 20분 출발
9시 30분 '호남 교회사 연구소' 도착
: 소장 김진소 신부님
10시 완주군 봉동읍 '봉동성당'
10시 16분~20분 삼례 '석전교회' 목사님(윤병은) 시명

11시 신태인 '신태인 교회'
11시 10분 '신태인 성당'
: 레지오 회합 후 서명
11시 10분~11시 30분 원불교 회당 방문
11시 35분 '살렘교회'
11시 40분 '장조희 복지교회'
11시 50분 '장조희 백산교회'
12시 '장조희 오룡교회'
: 노진민, 이현정, 원근호
12시 13분~28분 '부안 천주교회'
: 레지오 회합후 서명
12시 35분~55분 부안군 농민회
4시 24분 '백산성지' 도착
5시 정읍시 장내리 전봉준 선생 고택지
: 혁명 전에 서당 선생 하시면서 잠시 머물렀던 곳
5시 16분 말목장터 '감나무'
: 첫 혁명의 발원지 말목장터 때 사람들을 모이게 해 군수 조병갑의 횡포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 드높임
5시 24분~40분 황토현
9시 30분 익산 '작은자매의 집' 숙

◆활동상황◆

일정상의 문제로 속으로 예정된 익산 '작은자매의 집'으로 오는 중간 중간에 위치한 작은 교회들과 원불교, 성당들을 둘러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을 받다. 저녁에 '작은자매의 집'을 찾기위해 엄청 헤매다.

지역의 작은 교회와 성당은 천주교연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역시 '빨갱이는 누가 잡어'라든가 '선생님(DJ) 뜻에 따라 지금은 개정할 때라든가 '선생님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지'라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미사 때 신부님의 한 말씀(서명하세요~) 같은 준비된 상황이 없으니 천주교 사람이라도 쉽게 서명을 해주지 않았고, 생각도 많이 달랐다. 어른들과 대화하는게 무지 힘들다고 생각된다.

8월 26일

6시 30분 기상
 7시 미사 참석
 1시 '작은자매의 집'에서 출발
 : 노진민, 오두희, 이현정, 지현만, 원근호, 임현주, 유범규
 1시 54분 전주교구 '동산성당' 도착
 : 이영우, 이지형 결합
 2시 28분 전주교구 '동산성당' 출발
 2시 36분 호남제일문 도착
 : 강성준, 전가대연(김진연, 우계민) 결합
 기아특수강 5명 동참, 자전거 30대 대어
 3시 자전거 순례 출발
 : 신부(문정현, 문규현, 김봉술, 최종수, 리수현, 김진화, 정식수, 김형수, 이영우)와 수녀(서학동1, 용머리3, 용안2, 교정사목1),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청년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사제단, 국보법철폐와 양심수문제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상임대표 한상열목사), 국보법철폐와 양심수문제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익산연대회의 등 60여명
 코스는 호남제일문→종합경기장→코아백화점
 4시 10분 전북도청 앞 전주코아백화점 도착
 4시 10분~5시 집회
 : 참여인원 약 60명
 5시 15분 전동성당 도착
 7시~8시 16분 미사
 : 리수현 신부동 11명 공동집전
 강론은 김선태 전주교구 신학원 부원장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
 박종근(천호성지), 문규현(서학동), 최종수(수류), 오수(김봉술), 오장선(사목국 부국장), 김병희(진동보좌), 김진화(동선), 정성만(소양), 이영우(교정사목)
 참석인원 200명
 9시 시학동 성당 숙

◆활동상황◆

순례 시작한지 처음으로 자전거 시위를 했다. 자전거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가장 많은 지역 사람들이 준비를 해 주었다. 호남제일문에서 시작하여 한줄로 늘어서 구호도 외치고, 선두차량이 선무방송을 하였다. 다니는 거리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웠지만 코아백화점에 와서 마무리 정리집회까지 별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찬성도 반대도 없었다. 박수치는 시민들이 가끔은 있었지만, 저녁에 있던 미사 강론은 약간 긴뒹했지만 내용은 좋았다. 리수현 신부님의 마지막 구호가 가장 좋았다. 끝나고 서명 작업함. 뒷풀이까지.

경찰의 호위속에서 진행된 자전거 시위, 선무방송과 구호동 전반적인 진행상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코아백화점 앞에서의 정리집회와 함께 했던 유인물 배포 대신 이동서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폐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읽을 수가 없었다.

저녁미사 강론내용은 좋았다. 나도 반성했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 나도 이 사회에 편입되어 그렇게 적응하길 바라는지. 모든 사람들을 절리게하는 대목이었으나 약간 길었던 것이 적절한 점.

리수현 신부님의 멋진 정리구호.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민족통일 앞당기자"
 마리아상 위에는 멋진 PC.
 "국가보안법 철폐하여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구호를 따라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10년 전에는 다 했었는데, 안해봐서 못하지."
 라는 빼어난 말씀까지.

8월 27일

11시 시학동 성당 출발
 : 노진민, 이현정, 이영우신부, 막달레나 수녀님, 강성준, 임현주, 가대연(이영우, 이지형, 유범규)

12시 38분 군산도착 점심식사
 1시 40분 미군기지 앞 도착
 2시~3시 미군기지 시위 (약 30여명)
 : 목사님 2분, 기아특수강, 기타 시민단체
 3시 20분 기아특수강 정문 앞 도착
 3시 40분~4시 40분 기아특수강 해고자 복직 위한 노동자 집회 참가
 7시 23분 수류성당 도착, 사제관에서 숙.
 노진민, 이현정, 유범규, 강성준, 최종수

◆활동상황◆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기상하였다. 2시 되기 조금 전에 미군기지 앞에 도착했다. 미군기지를 보호해주고 있는 전경을 보니 다시 불끈 화가 치솟았다.

2시부터 진행된 집회에는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종수 신부님 발언, 노진민 단장님 발언, 불을 뿜는 문정현 신부님의 발언과 구호로 정리된 1시간여의 집회였다. 노진민 단장님의 '상여소리'는 정말 그 집회에 딱 맞았다. 비도 부슬부슬 오고 떠나야 할 놈들에게 보상받아야 할 것을 다 받고 Go home 시켜야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미군범죄의 근절과 우리 땅, 우리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겠다.

기아특수강 앞에서의 집회 역시 미군기지 앞에서 모였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역 안에서 여러 단체와의 연대가 잘 되는듯 했다. 노진민 단장님, 문정현 신부님 발언 등, 역시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랜만에 참석한 노동자 집회. 전에도 소단위 노조의 투쟁에 참여했지만 어딜가나 노동자의 사연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웃고 있든지, 울고 있든지 간에 말이다. 내가 해줄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너무 미안했다. 그냥 "고생하세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라는 말 밖에는. 이땅의 이러한 모습들이 없어지려면 국보법이 철폐되고 동일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8월 28일

8월 28일
 7시 30분 기상
 9시 수류성당 출발

8월 29일

8월 29일
 늦은 8시 22분 광주 북동성당 도착
 : 노진민, 이현정, 김경호, 강성준, 안덕현
 8시 45분 '통일의 집' 도착
 이용건 결합

◆활동상황◆

하루늦게 '통일의 집'에 도착해서 선생님 4분(리경찬, 이공순, 김동기, 이재용)을 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거하게 저녁 준비를 해주셔서 배를 든든하게 불리고 선생님들과 담소를 나눴다. 이런 일정으로 다니는 것에 무척 기뻐하셨다.

8월 30일

8월 30일
 8시 40분 '통일의 집' 출발
 : 노진민, 김경호, 이현정, 강성준, 이용건, 김동기 선생님, 안덕현(인권위)
 9시 30분 북동성당 도착, 자전거 출발
 : 유범규(청주) 등 약 80명, 자전거 70대, 신부님 5명, 수녀님 10분, 광주 청년연합회, 광가대연, 북동본당 신사, 진월동 본당 신사, 민주노총 광주지부, 광주전남연합
 12시 9분 기차역 선전전 살레시오 수도원 도착, 점심식사

1시 30분~2시 30분 전남대 앞 서명, 피켓, 유인물 배포 작업

2시 48분 폭우 때문에 자전거 순례 중단

7시 30분~8시 30분 북동성당 미사

: 신부 18분 공동집전, 참여신자 500명, 집전 송봉철(농성동 성당), 강론 이준형 신부

◆활동상황◆

북동성당에서 명단체크와 활동상황 주의사항을 듣고 간단한 출정식을 마친 후 시내 자전거 순례에 들어갔다. 경찰의 호위 속에 무난히 진행되었다. 오전에 기차역에서 약 30분간의 서명작업을 한 후 다시 살레시오 수도원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전대 앞에서 1.2조 선전전 3.4조는 다른 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전대 앞에서 서명 진행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든 오후 일정이 취소되었다. 역시 광주담게 미사에는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였다.

모든 일정(자전거)이 경찰의 협조 아래 잘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비 때문에 오후 일정이 중단되었다.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오후 일정이 비어버려서 널널하게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오후에 자전거 순례 중간에 있었던 서명전에서는 생각보다 기대에 못미쳐 약간 실망했다. 다른 지역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람은 적었지만 생각만큼 쉽게 서명해주지는 않았다. 그 거부가 '이런거 매일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 '또 서명만 하고 결과는 없다' 또는 '김대중도 안되니 별 희망이 없다'라는 느낌이었다.

이준형 신부님의 강론은 IMF 수인을 만들어 내는 국보법에 대한 얘기였다.

8월 31일

6시 40분 기상

7시 40분~3시 북동성당에서 출발, 자전거로 목포 도착

: 25명, 자전거(15대), 봉고1대(3명), 트럭1대(1명).

자가용1대(1명), 광주지역 청년회와 본당학생

3시 버스터미널과 차없는 거리 선전전

: 약 30명 결합(천정연 신대원 강대백 의장, 목포 가대연 5명, 민주시민운동협의회 10명, 천장연 10명), 공소 사목담당 이봉문 신부님 자전거 동승

6시 용당동 성당 도착, 저녁식사

7시 30분~8시 30분 미사

: 신부님 6분(북교동 이준형, 용당동 김계홍, 표양권, 영광 이영선, 특수사목 공소담당 이봉문, 대성동 글룸반 회 오수동)

9시 북교동 성당에서 숙박

◆활동상황◆

예정시간 보다 40분 늦게 북동성당을 출발하여 광주를 떠났다. 광주를 벗어나기 전 아침을 먹고 비가 오는 관계로 비옷을 걸치고 목포로 출발했다.

언덕길이 많아지고 햇빛이 뜨거워지면서 대열이 많이 늘어졌으나 모두 끈기를 가지고 잘 달렸다. 정평위 사무국장님의 자가용이 길을 인도하고 마지막에 중앙 순례단 봉고와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트럭 한 대가 뒤따랐다. 예정시간보다 많이 늦을 것 같았으나 30분 늦게 3시 30분에 도착하여 목포에서 기다리는 30여분과 결합했다. 30분간의 선전전, 시내 자전거 순례로 차없는 거리에서 약 1시간쯤 선전전과 서명을 마치고 저녁미사에 참여했다.

아침일찍 목포로 출발하기에 늦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코스 점검으로 약간 늦게 광주를 출발했다. 생각보다 힘든 일정이었다. 오르막 길이 많아 모두 힘들어 했지만 끝까지 완주하였다. 완주는 했지만 목포에 도착하여 피곤해서 그리 적극적으로 서명전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다음에는 힘든 코스일 때 완주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역에서 힘있게 선전, 서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포 시민들 역시 좋지도 싫지도 않은 반응이었다. 서명에 결합한 목포 사람들도 나이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경험부족(?)으로 그리 적극적으로 서명을 받지는 못했다. 아무튼 차없는 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불구하고 다소 활기차게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미사는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였고, 신자들은 거의 서명을 마쳤다. 광주에서와 같은 신부님의 같은 내용의 강론

이 있었다.

9월 1일

9시 기상

10시 아침식사

12시 20분 북교동 성당 출발

: 노진민, 이현정, 이정미, 전경진(광주정평 사무국장), 이용건, 온상은(중흥동성당 청년회), 정승기(쌍촌동 청년회장), 김기연(철곡동)

6시 40분 부산 만덕성당 도착, 사제관에서 숙박

◆활동상황◆

목포 북교동 성당에서 떠나기 전 어떤 아주머니께서 수고한다며 봉투를 건네주었다. 남해고속도로를 따라서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이 생각보다 멀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라는 기대반, 걱정반으로 도착하였다.

9월 2일

7시 기상

8시 10분 부산역으로 출발

9시 20분 부산역 도착, 자전거 출발

: 노진민, 이현정, 이정미, 장승기, 온상문, 김기연, 이용건

자전거 26대, 참여인원 45명, 공부방,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노사목, 부가대연, 천주교사회복지회, 노동상담소, 청년연합회, 일반신자, 윤희동 신부 등 참여

11시 30분~12시 태화백화점 선전전, 서명

12시 전포 성당에서 점심식사

1시 30분~3시 30분 롯데 백화점앞 선전전, 서명

4시 30분 부산역 도착, 정리집회

7시 30분 초량성당에서 미사

: 신부님 5분 집전, 이성균(부산정평위원장) 집전, 김현영(천주교연대부산대표) 강론, 조옥중(정평 총무), 윤희동(초량구임), 김상효(울산), 뒷풀이 때 조성재(빈민사목)신부 결합

8시 30분 송도에서 숙박

◆활동상황◆

태화백화점 앞 선전전 때 젊은 여자들이 박카스 2박스를 기증했다. 부산역에서 약식 출정식으로 자전거 순례를 시작하여 태화백화점으로 출발했다. 점심식사 후 자전거로 롯데 백화점으로 이동하여 약 2시간 동안의 서명작업을 진행하며 구호 외친 후 초량성당으로 이동했다. 미사 끝나고 아주머니께서 음료수라도 마시며 만원 주시다.

김현영(노동해양사목) 신부님의 강론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영성체 노래로 '바위처럼'과 마침노래로 '백두에서 한라를 부르다' 끝나서 식사 때 신부님들 힘있는 단식과 식발투쟁 결의발언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의를 다졌다.

호남지역과는 역시 다르게 부산역에서 출발집회시 언론의 관심이 없었다. 사진도 안찍고 인터뷰도 당연히 없었다.

경찰의 비협조와 부산도로 사전으로 아침시간 버스, 용달, 자가용 할 것 없이 차가 대열에 끼어드는 통에 위험하게 순례하였다. 사거리에서 대열이 끊어지기도 여러번, 중간에 경찰에 협조요청했으나 해당 구역까지만 인도해주고 떠났다. 오전 내내 불안하게 순례했다. 부산 도로 사정상 시민들이 짜증났다.

태화백화점 앞의 서명에서 '아, 여기가 부산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다. 별 관심없는 눈초리와 유인물 거부 등, 지역성의 차이를 확실히 느꼈다. 롯데 백화점 앞의 선전 서명은 부산지역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다소 활기를 띄었다. 하지만 백화점 지하도에서 부유층들의 무관심은 더욱 심한 듯 했다. (드디어 호통치는 할아버지 만나다!!) 처음에는 1시 30분~5시까지의 일정이었으나 3시 30분까지로 조정하여 퇴근시간을 피해 부산역으로 도착

하여 오전보다 무난한 자전거 순례를 진행했다. 초량성당의 미사는 전라도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신자들이 참여하였으나 참석한 신자들의 열기는 한결 간았음을 느꼈다.

9월 3일

8시 40분 기상. 민주공원 방문
 1시 30분~4시 남포동 거리 서명운동
 : 노진민, 이현정, 이정미, 김기연, 정승기, 이용건, 부가대연 3명(부산대1, 경성대2), 태종대 교회 1명, 김현영 신부님
 이후 만덕 성당에서 숙박(소위 영남위 사건 비디오 '동창회' 시청)

◆활동상황◆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은 거리(부산 국제영화제 장소, 부산극장과 대영시네마 길)에서 서명전하다. 주로 젊은 사람들을 만났다. '부산', '경상도'라는 의식이 있었으나 서명을 진행하다보니 생각보다는 많은 관심과 동의를 해주었다. 역시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했다. 첫날에 비해 많은 힘을 받고 마산으로 출발하게 되어 기뻐다.

9월 4일

6시 30분 기상
 8시 20분 만덕성당 출발
 9시 김해 도착. 자전거 순례 시작
 : 자전거 10대, 노진민, 이현정, 이정미, 이용건, 정승기, 김기연, 노사목, 우리농, 조삼호(부산정평 사무국장),

부산정평, 부가대연, 유영일(만덕성당/농촌사목 담당)신부

2시 40분 마산 가톨릭 문화원 도착
 3시~4시 마산 창동네거리 거리선전전과 서명
 : 관준석(마산교구사목사목/사회교육회관 관장), 이상원(수산), 남경철(진재) 신부
 4시~5시 창원으로 자전거 순례
 : 백남해(용잠)신부, 노사목, JOC, 마창총협, 마가대연, 지역희망연대, 통일자료실, 마산창원진해통일추진위 등 약 60명 결합

5시~6시 20분 창원 정우상가 앞 선전, 서명전
 7시 30분~8시 30분 가운동 성당 미사와 서명
 : 노진민, 이현정, 이정미, 이용건, 김기연, 정승기, 조삼호, 문국주, 이성수, 허성학 신부 등 약 150명 참여

◆활동상황◆

만덕성당에서 아침(라면)을 먹고 부산 도로 사정상 차로 김해까지 이동했다. 10대의 자전거로 창원을 거쳐 마산으로 가서 서명, 선전전을 하고 다시 창원으로 자전거 순례 후 서명 선전전을 진행했다. 가운동 성당 미사까지 다소 팍팍했던 일정이었다.

김해에서 창원까지는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창원에서 마산까지가 자루했다. 또한 거리에 차가 별로 없었음에도 길을 막거나 소리지르며 짜증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마산에서 서로 얘기가 잘 되지 않아 '가톨릭문화원'에서 맞아 주는 사람이 없어 다소 힘이 빠졌다.

하지만 창동사거리에서의 서명전때는 많은 인원이 함께 하였다. 역시 부산보다 더한 시민들 반응에 짜증도 나고 힘도 빠졌다. 특히 젊은이들이 거의 무관심했다.

다시 창원으로 왔던 길을 자전거로 다시 가서 한 서명전은 마산보다는 나왔다. 마산 때보다 서명을 많이 받았다. 구두방과 슈퍼아저씨께서는 입고 있는 조끼를 보고 경위를 물어보더니 서명용지를 가져오라며 적극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

9월 5일

7시 30분 기상
 9시 식사
 9시 30분 창원에서 밀양으로 출발
 : 노진민, 이현정, 이용건, 조삼호, 이정미, 정승기, 김기연, 마산JOC(5명), 문국주, 이성수, 이성희(마산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

11시 밀양성당 도착
 12시 미사참석, 서명운동, 창원에서 점심식사
 3시 30분 옥포에서 자전거 행진 시작
 : 7대, 박정돈(마산JOC회장)의 4명, 행진경로(옥포→대구교도소→서부정류장→대백프라자→성김대건성당)

4시 30분 대구교도소 도착, 집회, 성명서
 : 정홍규신부(푸른평화 지도신부), 사목국(1명), 대구 가톨릭청년연합회(2명), 대구청년협의회회장
 6시 대구시내 자전거 순례
 7시 30분~8시 30분 성김대건성당 도착, 미사 참석
 : 김전-정홍규 신부, 교구청사목사목담당신부, 신자 300명

◆활동상황◆

창원에서 밀양성당으로 가서 미사 참석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참석했다. 중간에 참석하여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도 없었다. 미리 연락을 해두어서 끝나고 서명작업을 하였다. 할아버지 한분이 '국보법 없으면 빨갱이 누가 잡나?'하면서 화를 내셨다. 고개를 넘어 창원에 도착했다. 옥포에 도착하여 자전거 7대로 행진을 시작했다. 길이 그리 높낮이가 낮지 않아 힘들지 않았다. 대구 시내 순례 때 앞에 트럭이, 뒤에 봉고 2대가 따랐다. 트럭에서 단장님이 허리까지 내놓고 계속 시민들에게 큰소리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비교적 호응이 좋았다. 길이 넓고 한산하고 높낮이가 별로 없어 25km를 달렸지만 기분이 좋았다. 내리막길에서 마산 JOC 한분이 넘어져 다치셨다. 뒷풀이 후 조삼호 국장님과 문국주 대표님, 마산 6명이 지역으로 떠나 아쉬웠다.

대구 교도소에 도착하여 집회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을줄 알았는데 몇 명 안되었다. 지역 상황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남 지역에 비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스를 잘 잡아서 25km를 달렸는데도 별로 힘들지 않았다. 미사때 단장님께서 "신앙인의 양심으로 국보법 폐지하자"를 주제로 강론하셨다. 부산하고는 또 다르게 부산보다 더 무관심하고 보수적인 것 같았는데 성당에서의 신자들의 관심과 눈빛이 따뜻(?)해서 좋았다. 내일 있을 거리서명전에서 대구 시민들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9월 6일

7시 기상
 9시 30분 성김대건성당 출발
 : 자전거 7대, 노진민, 이용건, 이현정, 이정미, 김기연, 정승기, 김삼민(대구가톨릭청년협의회회장), 석창훈, 오진락(신양성당 청년회),

10시 20분 교구청 도착
 11시 출발
 1시 경북 동명 도착, 점심식사 이후 차로 이동
 : 대구 결합한 사람들과 헤어짐
 4시 50분 상주 계림동 성당 도착
 : 박성태(푸른평화) 결합

◆활동상황◆

9시 30분에 김대건 성당을 출발하여 어제 왔던 길로 교구청에 도착했다. 경찰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시민들도 협조적이었다. 교구청에 도착하여 석창훈님과 단장님의 만남이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무실을 둘러봤고, 자전거를 고치고 난 후 다시 출발했다. 거의 1시간 30분에 걸쳐 동명에 도착했다. 점심 먹고 대구분들과 헤어졌다. 상주까지는 차로 이동했다. 저녁에 대구 푸른평화 박성태님이 결합했다. 하루 일찍 도착한 관계로 상주 도착하고 나머지 일정은 쉬었다. 저녁에 밀린 빨래를 했